

第 2 分 科 會

(産業協力分野)

〈共同議長〉

韓國側：趙 錫 來 曉星GROUP 會長

日本側：渡里 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會長

〈第2分科會 主題〉
(産業協力分野)

中小企業의 産業調整과 韓・日 協力課題

産業研究院 中小企業室
室長 白 洛 基

I. 序

1989년 이후 中小企業은 본격적인 構造調整期에 돌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中小企業은 지난 數年間 전반적으로 採算性이 惡化되고 있는 가운데 高賃金下의 人力難, 販賣不振에 따른 資金難, 그 리고 市場開放에 따른 競爭의 深化 등과 같은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왔다.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악화현상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製造業部門에서의 부도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개인사업자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不渡의 大型化 現象이 심해졌다는 점들이다. 이처럼 최

근 中小企業의 成長基盤이 크게 弱화된 原因으로는 減速成長이나 人力難, 資金難, 거품경제의 후유증 등 여러 要因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構造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競爭力弱化業種에 속한 中小企業의 比重이 높기 때문에 産業調整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問題點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中小企業의 最近動向

지난해 韓國經濟는 1981年以後 가장 낮은 4.7%의 GNP成長率을 기록하였다. 設備投資가 -0.8% 減少하였고, 輸出이 전반적으로는 다소 回復勢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0.9%가 減少하였다.

輕工業製品의 輸出不振과 國內景氣의 침체에 따른 內需萎縮은 同部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生産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經營狀態를 크게 惡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中小企業의 生産은 販賣不振과 在庫累積 등으로 鈍化趨勢가 심화되어 지난해 12月中에는 前年同月對比 0.5%의 증가에 그쳤다. 業種別로는 化學製品, 도자기, 醫療·光學機器, 運輸裝備 등은 비교적 높은 生産증가율을 보인 반면 고무제품(운동화류 포함),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종이·종이제품 등은 生産감소 현상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經營악화는 1991년 10월 이후 不渡業體가 급증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全國의 平均 어음不渡率은 1988~90년 기간중 0.04%를 유지하였으나 '91년에는 0.06%로, 그리고 '92년에는 0.12%로 前年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不渡業體 數도 '90년의 4,140개에서 '91년에는 6,159개, 92년에는 10,769개로 급증되었다.

〈表 1〉

中小企業의 生産 增加率¹⁾ 推移

單位 : %

	1990	1991			1992					
			上半期	下半期		上半期	3/4分期	'92. 10	'92. 11	'92. 12
生産指數 增加率 (1985=100)	10.6	6.4	8.1	4.8	6.0	8.0	5.7	3.4	2.8	0.5

資料 : 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動向」

註 : 1) 前年同期間對比 增加率

특히 '92年中에는 中小製造業體의 不渡가 크게 늘어나 전체 부도업체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26.9%('91년)에서 30.3%로 높아졌다. 이같은 不渡增加 趨勢는 금년 들어서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그 근본적인 原因이 競爭力弱화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構造調整의 問題는 韓國中小企業의 중요한 懸案課題라 하겠다.

Ⅲ. 中小企業의 産業調整實態와 特性

1. 構造調整 促進要因

일반적으로 産業調整은 需要側面에서의 市場條件과 供給側面에서의 技術條件 및 勞働條件의 變化 등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市場이 開放되고 國際化가 진전될수록, 그리고 消費者의 需要패턴의 變化가 빠를수록 산업조정은 가속화된다. 또한 新技術이 開發되어 既存技術을 對替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구조조정도 빨라진다. 특히 勞働力의 量과 質의 變化, 賃金水準의 變化 등은 산업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3년간의 構造調整은 勞働條件의 變化에 기인한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中小企業의 構造改善은 國際的 相對賃金水準의 變化에 대응하여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결국 既存製品의 高級化를 위한 製品差別化戰略의 추구나 새로운 高附加價值産業으로의 移轉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산업은 과거 先進國들이 했던 것과 같이 海外投資를 통해 새로운 生産立地基盤을 구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中小企業 經營惡化現象도 勞働集約的 競爭力弱化業種에 속한 중소기업이 많은데다 그동안의 내외여건 변화로 OEM形態의 수출을 주로 하던 勞働集約的 國際下請産業의 存立基盤이 크게 약화된데서 根本原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構造改善을 促進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中小企業의 經營基盤을 強化시키는 길이라 하겠다.

2. 構造調整 進行實態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勞働集約的 産業部門에서의 産業調整의 進行은 對內的으로는 생산성을 상회한 임금 상승, 對外的으로는 中國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에 기인하여 價格競爭力을 상실함으로써 輸出不振과 採算性 惡化가 심화되고, 그 결과 生産減少 → 限界企業 倒産 및 海外로의 設備移轉 → 生産減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輕工業製品의 輸出不振現況과 이에 따른 生産萎縮實態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9년부터 현저해진 우리나라의 輸出不振은 主要輸出市場인 美國과 日本에서 우리나라 輕工業製品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데에 기인한 부분이 매우 크다. 美國市場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占有率은 1988년의 4.6%를 頂点으로 하락하기 시작, '92년에는 3.1%로 낮아졌다. 반면 中國産 製品의 輸入市場占有率은 같은 기간중에 0.8%에서 4.8%로 급속히 상승하였다. 日本市場에 있어서도 우리輸出商品의 占有率이 '88년의 6.4%에서 92년 1~11월중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中國의 경우는 같은 기간중에 4.3%에서 7.3%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요수출시장에서의 占有率 下落은 섬유제품 및 신발류 등 中小企業의 비중이 높은 輕工業製品의 價格競爭力이 약화되어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에게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纖維製品의 美國市場 占有率은 '88년의 11.4%에서 '92년 1~11월중에는 7.2%로 떨어졌으며, 日本市場에서는 더욱 심해 織・編物製衣類의 경우 占有率이 32.2%('89년)에서 15.6%('92.1~11월)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신발의 경우에는 主要市場에서의 점유율 하락폭이 더욱 심각한데 이는

특히 中國産 低價品の 공세로 低價신발류의 경우 價格競爭力을 크게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市場에서의 우리나라 신발의 占有率(物量基準)은 '88년까지만 해도 21.7%를 기록, 中國의 14.9%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이는 臺灣의 33.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價格競爭力을 급속히 상실, '91년에는 우리의 점유율이 12.4%로 낮아졌고, '92년 1~8월중에는 8.7%로 격감되었다. 이에 반해 中國의 경우는 臺灣 및 韓國産 低價신발市場을 급속히 잠식하여 같은 기간중에 각각 48.7%, 54.2%로 점유율이 급상승하였다. 日本市場에 있어서도 신발제품의 占有率(物量基準)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88년의 한국산 신발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41.7%로 臺灣의 33.5%, 中國의 18.1%를 크게 상회하여 最大輸出國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1년에는 점유율이 29.1%로 하락, 中國(31.6%)에 최대수출국의 위치를 내어 주었다.

〈表 2〉 美國・日本市場에서의 輸入占有率 變化

單位 : %

		美 國				日 本			
		1988	1990	1991	1992	1988	1990	1991	1992(1)
總輸出	韓 國	4.6	3.7	3.5	3.1	6.4	5.0	5.2	5.0
	中 國	0.8	3.0	3.9	4.8	4.3	5.1	6.0	7.3
纖維類(2)	韓 國	11.4	9.7	8.4	7.2(1)	32.2(3)	25.3	22.0	15.6
	中 國	9.6	12.6	12.9	13.8(1)	30.1(3)	32.6	39.6	48.9
신발類(4)	韓 國	21.7	17.8	12.4	8.7(5)	41.7	-	29.1	-
	中 國	14.9	35.3	48.7	54.2(5)	18.1	-	31.6	-

註 : 1) 1~11월 기준

2) 일본의 경우는 직·편물제 의류에 한함.

3) 1989년 기준

4) 물량기준

5) 1~8월 기준

勞働集約的 輕工業製品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主要輸出市場에서의 점유율 하락뿐만 아니라 同製品의 전반적인 輸出不振現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1988년에 前年對比 22.0%의 신장율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1989~91년 기간중 年평균 1.4%의 신장에 머물렀으며 1992년에는 -0.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같은 수출실적은 이 기간중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둔화폭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써 일부 輕工業製品의 경우는 價格競爭力을 거의 상실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重化學製品의 경우는 수출신장율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1989~91년 기간중 年平均 9.5%의 신장율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7%의 신장세를 시현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한 진다 하겠다.

生産의 절반 이상(1990년: 섬유제품 51.7%, 신발 75.4% 등)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공업부문의 경우 輸出競爭力 弱化和 이에 따른 輸出減少는 곧 國內 生産基盤의 萎縮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輕工業部門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纖維·衣服·가족産業의 生産이 1988년 이후 연속 4년간 감소되어 오고 있다.

〈表 3〉

主要商品別 輸出增加率

單位：%

	1988	1989	1990	1991	1992	
					金額(百萬 달러)	增加率
總 輸 出	28.3	2.7	4.2	10.5	76,632	6.6
1 次 產 品	20.0	1.4	-4.2	2.5	3,278	-1.5
輕工業製品	22.0	0.3	2.3	1.7	25,258	-0.9
重化學製品	34.5	4.7	6.5	17.3	48,095	11.7

資料：韓國貿易協會, 「Data Base」

3. 中小企業 産業調整의 特性

産業調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中小企業은 技術, 資金 및 情報의 수집·활용능력 등이 취약하여 大企業에 비해 産業調整 速度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벤처企業으로서 産業調整의 先導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울러 成長鈍化 産業에 속한 중소기업이 많아 그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 또한 많다는 二重的 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産業의 경우 後者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中小企業이 産業調整過程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製造業部門에 있어서의 1983~90년에 걸친 産業別 附加價值比重과 産業別 中小企業比重的 變化推移를 비교해 보면 〈表 4〉와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産業別 中小企業의 比重은 제조업 전체로 平均

7.2% 포인트 증가했지만, 組立金屬・機械 및 裝備製造業(KSIC 38)分野는 이보다 2.1% 포인트 낮은 5.1% 포인트 증가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飲・食料品の 中小企業比重은 10.8% 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纖維・衣服 및 가족製品은 14.9% 포인트, 그리고 나무・나무제품은 10.8% 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製造業全體의 平均 中小企業比重 增加分 7.2% 포인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요약하면 음・식료품, 섬유・의복 및 가족제품 등과 같이 製造業部門에서 附加價值比重이 低下되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中小企業比重이 현격하게 增加한 반면에, 組立金屬・機械 및 裝備製造業, 그 중에서도 특히 一般機械, 運輸裝備産業 등과 같이 최근에 附加價值比重이 크게 높아진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의 增加는 製造業 平均 中小企業 比重 增加分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제조업 평균에 비하여 그만큼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상당수의 中小企業들이 大企業集團과 都給關係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산업조정과정에서 中小企業이 主導的 役割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成長鈍化産業의 경우 投資資本規模가 큰 大企業일수록 採算性 惡化가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大企業들이 優先的으로 事業轉換이나 經營多角化 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表 4〉 産業構造와 中小企業 比重의 變化(附加價值 基準)

單位 : %

	1983		1990		1983-1990	
	産業構造	中小企業比重	産業構造	中小企業比重	産業構造變化(%P)	中小企業比重變化(%P)
飲·食料品	15.8	27.7	10.7	38.5	-5.1	10.8
纖維, 衣服 및 가죽	16.6	52.5	11.9	67.4	-4.7	14.9
나무·나무製品	1.8	55.7	1.8	66.5	0.0	10.8
종이, 印刷·出版	4.9	53.9	4.6	58.5	-0.3	6.9
化學	18.5	37.4	18.2	41.4	-0.3	4.0
非金屬礦物	4.9	52.0	5.0	62.7	0.1	9.3
第1次金屬	8.1	21.3	7.4	25.8	-0.7	4.5
組立金屬, 機械 및 裝備	27.4	32.2	38.5	37.3	11.1	5.1
(組立金屬)	(4.1)	(57.9)	(5.1)	(67.0)	(1.0)	(9.1)
(一般機械)	(4.1)	(56.2)	(7.0)	(56.6)	(2.9)	(0.4)
(運輸裝備)	(10.1)	(24.1)	(15.0)	(27.6)	(4.9)	(2.5)
(電氣·電子)	(8.4)	(14.5)	(10.2)	(20.6)	(1.8)	(6.1)
(精密機械)	(0.8)	(64.6)	(1.1)	(62.8)	(0.3)	(-1.8)
其他 製造業	2.0	62.4	1.8	72.1	-0.2	9.7
製造業 全體	100.0	37.1	100.0	44.3	0.0	7.2

資料 :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3, 1990.

IV. 産業調整類의 韓·日 中小企業 協力課題

韓國의 中小企業은 이제 構造改善을 통해 새로운 成長基盤을 구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生産製品의 高附加價值化와 더불어 知識·技術集約産業에서 새로운 成長分野를 개척해야 되며, 後發開途國에로의 進出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技術水準 및 開發能力의 向上과 大企業·中小企業間 協力關係의 強化를 통해 공동으로 構造改善을 추진하는 것 등이 필요하며, 國際化戰略의 효율적 추진방안도 摸索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産業調整의 過程에서 過去 日本 中小企業들이 知識集約化로 移行하던 過程과 1985年 以後의 円高現象이 심화되는 過程 등에서 겪었던 構造調整經驗은 韓國 中小企業에게도 많은 示唆點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兩國 中小企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經驗의 相互交流는 兩國 中小企業間 國際分業構造를 再定立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向後 韓國 中小企業의 가장 큰 市場은 部品·素材 및 機械類産業部門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 産業分野에 있어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1991년에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는 88億달러('92년: 79億달러)로 史上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는데, 機械類·部品産業(電子·造船 除外)에서만 86億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貿易逆調는 兩國間 技術 및 生産性 隔差에 기인한 부분이 가장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韓·日間 産業協力 擴大의 潛在的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韓國은 이들 産業의 發展에 필요한 周邊關聯産業이 상당수준 발전해 있으며, 生産性 增加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이들 産業에서의 1人當 時間當 附加價值가 5~6倍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兩國이 相互 協力과 競爭을 통해 이들 産業分野에서 産業內貿易을 통한 水平的 分業關係를 擴大·深化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円貨強勢 現象도 이같은 韓·日間 産業內 分業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韓·日 中小企業間 協力 強化를 위한 몇가지 提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府次元에서 198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韓國 中小企業者 研修計劃」의 일환으로 1991~'95년까지 5年間 추진하게 될 中小企業 自動化 技術 協力事業이 內實있는 結果를 초래할 수 있도록 研修業體, 研修方法 및 期間 등이 설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지난해 發足된 「韓·日, 日·韓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이 韓·日 中小企業의 生産性 및 附加價值 提高에 기여할 수 있도록 計劃·運營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韓國의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環境이 크게 改善된 점을 감안, 民間次元에서의 合作投資, 技術提携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調査·弘報活動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第2分科會〉
(産業協力分野)

코 멘 트

(株)第一勸銀總合研究所 代表取締役 理事長 池內 康彦

이와같은 훌륭한 會議에서 코멘트를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産業研究院의 白 洛基 中小企業室長님이 산업조정등 한국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앞으로의 協力強化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지적하신 韓日合作에 대하여 한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기업이 협력해 第3國에 진출해 가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白室長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의 일본기업 문제는 그야말로 내일의 貴國 問題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은행의 고객인 中小企業 여러분에게 정보기능제공등에 대해서 1년에 講演會를 몇번이고 하고 있으며, 주로 테마는 경제의 전망이라든가 경영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意見交換이라든지 질의응답을 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바를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專門的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할 니시오리(錦織) 선생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일본 중소기업은 円高, 무역마찰, 투자마찰등 지극히 아주 어려운 환경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日本의 기업은 몇번이고 이러한 사태를 극복해 왔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기업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리스트럭처라든가 신상품 개발, 기술개발, 노무관리, 공해대책등 貴國의 問題와도 대단히 상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他山之石으로서 한가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은 이와같은 벽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가면서 파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스트럭처입니다. 특히 리스트럭처의 背景에는 장기비전 그리고 종업원을 끌어들이는 이념이 필요합니다. 會社の 전원이 이것을 충분히 理

解해 둘것, 그리고 단순히 위로부터의 경비절약운동이 아니라 밑에서 개선 제안이 올라오는 組織風土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세계속에서 顧客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 상품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 나간다는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日本 中小企業의 경우, 납입선의 기업으로부터 가격면이라든가 정밀도, 성능, 신뢰성등 지극히 가혹할 정도의 要求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현장의 QC활동등을 통한 全社的인 노력을 기울여 여기에 부응해 왔습니다. 結果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成功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同業者間的 경쟁이라든가 異業種間的 교류협력등으로 대기업이 역시 맞설수 없을 정도의 신상품,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또하나 重要な 점은 리스크매니지먼트의 전개라고 봅니다. 고객으로부터 不満足이 나왔을때 그것을 회사으로 받아들여 당장 대응해 가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單純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조직속에서 나쁜 情報일수록 그것을 빨리 TOP에 알리고, TOP은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全社的으로 잘 통하는 조직을 평소부터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점은 역시 従業員이나 企業이 더불어 살아 나간다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특히 QC운동등에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參與시킨다면, 종업원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보람이 있는 職場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것이 現場의 생산관리라는 면에서 대단히 커다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設備改善으로 이어지고, 또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하나 사회와의 共生關係면에서 역시 공해대책, 자원절약, 환경보전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貴國의 중소기업 경우도 이러한 조건을 아주 점점 엄격하게 요구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企業에게는 경영자로서 사람, 돈, 물자, 기술을 포함한 정보등 네가지 資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기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經營의 소프트웨어라든가 휴먼웨어등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貴國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보다도 美國型이라고 생각되며, 우수한 경영자 여러분들의 TOP-DOWN에 의한 리더쉽으로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傾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終身雇用이 밑받침이 되어 종업원으로부터의 BOTTOM-UP이 보다 용이하고, 이것이 고용을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QC活動등은 아주 실질적으로 기술을 응용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美國에 진출한 日本企業도 널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組織風土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생산효율의 비약적인 上昇과 現地 종업원들의 모럴업의 공헌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권장할 수 있는 部分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金滿堤 前副總理 兼 經濟企劃院 長官의 말씀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는 對立關係가 아니다, 同伴者 의식을 가지고 서로간에 尊重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위적인 경영시절을 탈피해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意見開陳과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自己發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경영의 성공을 가져오는 바로 지름길이라 생각해 감명받았습니다.

이상 簡單합니다만 저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株)釜山파이프 副會長 李 平 宇

방금 소개받은 李平宇입니다. 사실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論調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경영에 동시에 관여한 경험의 일단을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觀點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때 韓國과 日本의 중소기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系列化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독립적인 중소기업이라 해도 판로라든가 기술면에 있어서 역시 대기업과 하나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形成되어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韓國은(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계열기업인 중소기업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대기업과 競爭을 벌이는 적대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韓國 中小企業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資本이 영세하고 技術力이 미약하며 여기에 대기업이나 또는 기타 외부로부터의 협력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白室長님이 중소기업의 산업조정과 韓日協力 課題에 대해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듯이 中小企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역시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인 것이 아니고 勞動集約적인 것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韓國의 中小企業이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白室長님께서 일일이 전문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시다만, 저로서는 다만 감각적인 견지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中小企業은 대기업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 그리고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옛 한자에 “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ぞったく라고 하는데, “줄”은 달걀이 부화될 때 병아리가 껍질안에서 쪼는 소리이고, “탁”은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줄탁同時”라고 해서 역시 호흡이 一致해야만 이것이 부화를 하는 데 成功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協調라는 것도 “줄탁同時”와 같은 호흡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古事成語에 보면, “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은 역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이런말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中小企業과 大企業과의 협력관계를 저는 수일전에 全經聯의 여러 회장단과 중소기업 회장단들이 행한 懇談을 통해 이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립관계가 아닌 協力者로서 공동운명체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크게 鼓舞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問題가 人材確保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敎育問題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높으나 학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日本人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高學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職場에서 학교를 나온 新入社員들을 채용했을 때, 가장 당황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학력이 정말로 너무 낮아서 도저히 어떤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때 日本은 기업 자체에서의 교육도 철저합니다. 학교교육이 實質적으로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자기의 직책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요건을 구비해 줍니다. 그래서 韓國에서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실제로 社會에 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技術移轉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會社의 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中小企業은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저희회사등 4개사가 합작

을 한 작은 多國籍 企業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새로 공장을 하나를 신설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初期段階입니다만, 거기에 관여하는 독일 기술자가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금을 하는 技術에 있어서 한국은 결코 일본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기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技能이라는 것은 精神風土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와 合作하고 있는 日本의 회사를 자주 가봅니다. 거기서는 도금이라는 것이 끊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365일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칠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日曜日에도 殘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3D현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안하는 精神風土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의 川崎製鐵과 30년동안 거래를 하며 수차례에 걸쳐 연수를 보내왔습니다만, 기술연수로서가 아니라 精神風土를 學習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진 日本의 절박한 풍토를 배워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不幸했던 過去가 자주 족쇄를 만들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인들이 모였을 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보다 外交的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수일전에 光州에 있는 무등산관광호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수십명의 아이들이 호텔로비에서 열싸안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日本 青森縣의 보이스카웃이라고 했습니다. 25명이었는데 교포의 소개로 光州에 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박5일동안 한국의 어린이들과 같이 지냈는데 이별이 아쉬워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마도 체면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韓日交流 正常化의 基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리즘(휴머니즘)時代에 맞는 인간적인 교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錦織입니다.

조금전 白室長님의 보고는 그 분석과 문제점의 지적, 과제등이 적확하고도 적절했습니다. 높이 評價하는 바입니다. 제가 굳이 코멘트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日本의 경험을 근거로 個人的인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白室長님은 구조조정 요인을 시장조건, 기술조건, 노동조건등 세 가지점을 들고 國際化가 진전할수록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변화가 빠를수록 산업조정은 빠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指摘에 異論은 없습니다만, 일반론으로서는 基本的으로 경제성장에 따르는 소득의 증대가 있다고 봅니다.

所得의 증대는 소비의 확대, 고도화를 가져오고 勞動力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明治時代 이래 오늘날까지 120년동안 경제, 사회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産業構造도 변화해 왔습니다.

韓國도 당연히 국민소득의 增大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격심한 산업구조 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日本에서는 會社의 壽命은 30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本業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30년을 넘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마케팅을 展開해서 신분야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中小企業이 존속, 발전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리스트럭처링이 永遠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日本의 경험으로서 円의 上昇이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는 1971년으로 固定換率이 變動換率로 바뀌어 1달러당 360円이 308円으로 올랐고, 그후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2기는 1985년 G5에 의한 플라자합意로 240円에서 180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현재로서 1달러당 110円대입니다.

이에 대한 日本 中小企業의 對策은, 제1기인 1971년에 즉각 円貨強勢對策臨時措置法을 정하고 円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한 업종 전환, 新시장개척등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74년에는 纖維構造改善法을 제정했고, 76년에는 特定中小企業者 事業轉換法, 78년에는 特定不況産業安定臨時措置法, 79년에는 中小企業 對策臨時措置法, 82년에는 特定業

種 地域對策臨時措置法等 긴급하고도 임시적인 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교훈은 단순한 價格競爭에서 탈피해 品質高附加價值化에 대한 이행이었습니다.

제2기인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는 급격한 円貨強勢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政府는 86년 5월에 經常收支 不均衡의 작심한 축소를 목표로 하는 經濟構造 調整推進 要綱을 발표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수의 확대, 국제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품수입의 증대등으로서 6개 項目입니다. 이에 의해서 日本經濟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전되고 석탄생산의 규모축소, 철강이나 설비 또는 고로에 휴폐지, 비철광산의 폐산, 알루미늄정련의 축소, 조선의 설비축소등이 推進되었습니다. 産業에 관련한 下請中小企業도 축소와 전환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 섬유, 도자기, 완구등 경공업품의 수출관련 중소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을뿐 아니라 輸入의 증대로 또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最近의 對策으로서 88년에 異業種의 연구개발을 위해 신분야 개척,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異分野 中小企業融合法을 만들었으며, 91년에는 雇用管理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노동력 확보법을 만들었습니다. 92년에는 지역진흥을 위한 法律의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중소기업 지역활성화법 그리고 物的流通의 합리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통업 업무효율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中小企業 對策은 구조대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합리화 지원이라든지 시장원리를 살린 정책을 취해가는데 特徵이 있습니다. 이 기간중의 교훈은 규모경제에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경제로의 이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최근의 狀況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日本의 산업구조를 국내 총생산에서 보았을때, 1차산업은 여전히 縮小가 되고 있으며 2차산업은 보합상태, 3차산업은 擴大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광범한 업종에서 高附加價值化라든가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中小製造業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서비스투입비율의 상승이라든가 정보서비스관련부문에 대한 취업이 增大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내에서의 겸업의 확대, 기업외에 있어서의 子會社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産業構造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業種轉換이나 新분야 진출등 그 존립분야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은 加工型 業種등 高

附加價值가 있는 분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日本의 중소기업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下請中小企業은 그 중층적인 분업구조에서 오는 問題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경제의 효율과 하청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개발력으로 연결된다는 利點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는 가운데 下請中小企業도 독자적인 전문기술이나 또는 고도의 기능을 살려서 新技術이라든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下請分業시스템 전체가 대기업을 頂点으로 하는 피라밋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종속형에서 社會的 分業關係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분업관계도 地域內 分業에서 地域間 分業으로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고도화, 모토리제이션의 더 한층의 진전등 中小 都小賣業者의 환경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로 마치겠습니다만, 國民經濟가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달이 불가결합니다. 中小企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경제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면서 저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國金屬家具工業協同組合 理事長 邊 鼎 九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의 池內선생님, 錦織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 중소기업 내지는 산업의 歷史는 아직 짧습니다. 불과 4,50년정도입니다. 일본의 産業歷史는 10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건데 韓國과 日本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또한 그 이후의 日本의 산업계의 발전이 한국에 미친 影響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韓國에서 약 20여년전에 中小企業을 직접 경영해온 사람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勞動集約的인 산업이 주축이 되었으며, 더욱이 정치와 관련되어 強力한 統制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산업도 어느정도 세계에서 10위권내에 들어가는 中進國 문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專門經營人들이 주도하는 것이 한국 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日本은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經濟先進國입니다.

조금전 李平宇 副會長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선진국은 專門化 經營의 산업구조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韓國에서도 중진국으로서의 산업변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30년동안 우리 中小企業들은 후진국과 개도국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大企業 爲主 또는 特定 財閥爲主의 경영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日本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系列化되어 잘 발달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구조도 中小企業이 重要하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協同發展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池內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日本은 현재 중소기업의 합리화 대책을 강구해 버블경제라든가 世界的인 不況에 대처하고 있으며, 韓國은 白室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構造調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일간 중소기업의 現實的인 差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5년간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양국에서도 도움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技術研修로 작년까지 1,237명이 도움을 받았고, 또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디만,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EC라든가 NAFTA등 地域블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韓國과 日本도 이에 맞게 블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간 기업對기업의 技術移轉問題라든가 국가와 국가의 유대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민간기업회의에서 충금을 털어놓고 블력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會議를 통해 각종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60년대에 春圖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의 노동자 노사분규 이후에 國際競爭力을 잃었으며 노임도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에서는 技術開發이라든가 정보경영상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産業의 歷史가 짧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賦存資源이 없이 수출주도형의 산업경제가 곧 한국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勞働人件費가 87년 이후에 2배이상 올랐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不安의 여건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高級商品을 개발하지

못해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全産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 이후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는 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으며, 白室長님의 말씀과 같이 인력난으로 인해 신상품 개발이 어려운 이때에 일본과의 상호보완적인 關係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년에 몇번이고 日本에 다녀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자주 經濟人들이 옵니다만,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직 덜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中國이라든가 베트남등을 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人類共榮을 위해서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낮은 쪽에서는 높은 쪽에 協助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도 87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技術開發에 投資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과 中小企業間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세계속의 한국의 産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좀더 相互補完的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불려화 현상에 공동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2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25TH JOINT CONFERENCE OF
JAPAN-KOREA & KOREA-JAPAN ECONOMIC COMMITTEES
————— 1993. 4. 15~16 KYONGJU KOREA —————

<第2分科會>
(産業協力分野)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
— 環境裝置「메이카」의 立場으로부터 —

三 菱 重工業株式会社
取締役副社長 弘津秀雄

1. 머리말

紹介받은 三菱重工業의 弘津라고 합니다.

오늘은 各界의 有識者 여러분이 많이 出席해주신 이러한 分科會에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日韓兩國間의 産業技術協力 問題에 對해서는 이제까지 여러가지 角度로 論議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이라는 主題로, 環境裝置「메이카」의 立場으로서 이제까지의 日本産業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環境保全對策의 概要와 今後의 展望, 課題의 一端에 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三菱重工業은, 環境保全의 分野에서는 日本에 있어서 開拓者的인 存在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經驗이 여러분께 이제부터의 「디스커션」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기쁘겠습니다.

2. 日本의 經濟發展과 環境問題

于先, 日本의 지금까지의 經濟發展과 環境問題의 關連에 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45년에 第2次世界大戰이 끝나고, 그 以後

日本은 戰後復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制限된 原資材와 資金의 制約中에서, 日本의 工業生産이 어느 정도 戰前 程度의 回復을 하기까지 10年 程度 걸렸습니다.

이러한 戰後의 復興을 거쳐서, 1960年代에 들어서서, 政府는 「國民所得 倍增計畫」을 發表하고 以後 日本은 高度經濟成長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BACK UP한 것이 「重化學工業化」政策이었습니다.

政府는 重化學工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支援策을 講究하는 한편, 産業界도 重要技術을 海外로부터 活発히 導入하고, 設備投資도 積極적으로 推進한 結果, 鉄鋼, 石油化學, 造船, 機械 等の 重化學工業은 눈부신 成長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960年代 後半이 되어, 이런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成長追及型政策의 잘못됨이 나오기 始作해서, 大氣汚染, 水質汚濁에 따른 健康被害의 發生等 各地에서 公害가 社會問題化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러한 事態에 이르렀는가를 돌이켜보면, 經濟成長最優先이라는 狀況中에, 公害防止技術 및 科學的인 知見이, 當時에는 아직 充分히 確立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根本的인 問題는 環境에 配慮한 都市計畫과 立地政策 等, 이른바 「環境 아세스먼트」의 생각이 稀薄했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年代에 들어서, 政府는 公害對策 基本法을 비롯한 各種 公害関連法을 制定하고, 극히 엄한 環境規制를 實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大氣汚染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SOx의 規制가 世界에서 가장 엄한 基準이 된 것을 始作하여, 自動車의 排氣「가스」에 관해서도, NOx 排出量을 10分の1로 低減하는 美國의 「마스카」法을, 日本에서는 美國보다 빨리 導入하고 完全實施를 達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公害規制에 対応하여, 企業이 實施한 公害防止 努力도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低硫黃原油와 LNG 등의 積極導入 以外에, 日本의 民間企業의 公害防止投資도 1965년에 300億圓 程度이었으나, 69년에는 1,000億圓을 突破하고, 75년에는 9,645億圓의 「피크」를 記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公害防止技術의 開發面에서도 産業界는 많은 努力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石油精製業界에서는, 重油脫黃裝置, 가솔린 無鉛化을 爲해 接觸改質裝置 等を 積極적으로 導入하고, 電力, 鉄鋼, 化學 等の 業界에서는, 排煙脫黃, 脫硝裝置를 設置하는 等, 最尖端의 防除技術을 採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日本의 環境保全對策은, 政府規制와 民間의 努力이 잘 합류되어 成果를 높여왔는데 여기에서 注目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環境保全이라는 새로운 技術分野의 研究開發을 進行하는데 있어서, 裝置「메이카」와 그 使用者業界가, 共同研究, 情報交換 等, 여러가지 形態로 緊密히 協力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開發된 技術을, 開發한 「메이카」가 独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国内는 勿論, 그 技術을 必要로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積極的으로 提供하고, 世界共通의 課題로서 함께 解決해 나가려는 姿勢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經驗을 土台로하여, 日本에 있어서 環境保全對策事例로서 大氣汚染對策과 廢棄物處理 對策의 2項目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大氣汚染對策에 대해서

우선, 大氣汚染對策에 대해서 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煤塵對策입니다.

예를 들면 石炭「보일러」의 排氣 GAS의 가운데는 1m^3 당 20g 以上の 煤塵이 包含되어있으며, 따라서 排氣 GAS量 $50\text{万m}^3/\text{H}$ 의 「보일러」가 1晝夜可動하면 1日 240t의 煤塵이 排出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除外하는 裝置가 「集塵裝置」입니다.

저희들은, 1960년에 集塵裝置의 生産을 開始했으나,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各 産業分野에 1,500基 以上の 集塵裝置을 納品하고, 그 處理가스量은 年間 2兆 m^3 以上, 실료 후지산의 約 9倍分이 가스정화를 한 셈입니다.

最近에는, 煤塵排出基準이 더욱 엄하게 되어, 굴뚝에서 연기가 안보이도록 하는 것도 要求되고 있으므로, 더욱 効率이 좋은 장치를 開發하여 実用化에 提供하고 있습니다.

또 「酸性雨」 問題도 大氣汚染防止의 큰 問題입니다. 世界에서 처음으로

「酸性雨」가 話題가 된 것은 1872年, 英國의 工業地帶에서 입니다. 이 酸性雨는 火山活動에 依해서 생기는데, 太古時代부터 存在했을지도 모르나 工業生産이 活潑化되어 감에 따라, 自然의 淨化能力으로서는 対応할 수 없게 되어 現在, 欧州, 北美, 中国에서는 深刻한 環境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그 主原因이 되는 것은, 大氣中에 放出된 硫黃酸化物(SO_x)입니다. 다행히 日本의 SO_2 規制基準의 엄한 것은 世界1位이고, 또한 SO_x 의 排出量도 歐美諸國의 1/8이라는 低水準을 達成하고 있으나, 이것을 可能하게 하고 있는 것이 日本의 排煙脫黃技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964年부터 産業用 排煙脫黃裝置의 開發을 시작하고, 現在는

国内의 火力電所를 中心으로 約 50%의 「쉐어」를 가지고 있으나, 脱黃率은 95% 以上에 対応할 수 있는 「레벨」에 이르렀습니다.

日本国内에는 數種의 프로세스가 있으나 이것에 의하여 SOx 対策은 萬全이라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後의 地球環境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国内만의 対策으로 充分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欧州, 美国, 中国을 始作하여, 世界 數個 國에 排煙脱黃技術의 提供과 裝置의 輸出을 하고 있고, 酸性雨対策에 약간 貢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제부터 工業化가 顯著的한 아시아 諸國에 대해서도, 各國 나름대로 必要性의 差가 있어서, 效率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싼 값의 脱黃裝置의 提供에도 努力하고자 実行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光化學 「스모크」의 原因이되는 NOx 対策도, 大氣汚染防止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될 問題입니다. NOx는 SOx와 같이 酸性雨를 내리게 하는 原因이 되고, 저희들은 1970부터 發電用 보일러를 中心으로 脱硝技術의 開發에 着手하여, 實用化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實用化한 技術은 「燃燒의 改善에 따른 NOx 發生의 低減」과 「排出된 排煙中の NOx의 分解, 除去」라는 2段 構造로 되어있고, 二重, 三重의 「脱硝」를 하고 있기 때문에, NOx의 排出量은 前에 비해 10分の 1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脱黃技術과 脱硝裝置는 海外에서도 높이 評價되어 저희들의 경우 歐美 12社에 技術輸出을 하고 있어, 他 「메이카」도 同一한 國際協力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4. 廢棄物対策에 대해서

다음은 廢棄物 対策에 관해서 입니다. 廢棄物은, 말하자면 人間의 生活 그 自体이고, 産業活動에 따라 不可避하게 發生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國土의 넓이, 人口密度 또는 經濟水準의 差異 등에 따라서 問題意識의 強弱은 있지만, 各國 共通의 問題임에 틀림없고, 最近에는 아시아 諸國에서도 큰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燒却爐」의 分野에 着手했던 것이 1964年, 以後 四半世紀을 通해 研究開發을 거듭해온 技術은 海外에서도 評價되어, 1986年 싱가포르에 納入했던 燒却爐의 處理能力은 1日當 2,760t(5爐), 當時에는 世界大規模의 「플랜트」였으나, 繼續해서 92年에도 1日當 3,312t(6爐)의 「플랜트」를 納入하고, 環境의 나라 「싱가폴」에 어울리는 「플

랜트」로써 稼動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貴國을 비롯하여 대만, 마카오, 中國 等, 많은 나라에서 同一한 「쓰레기 燒却爐」가 稼動中, 또는 建設中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燒却爐는 燃燒効率が 높지 뿐만이 아니라, 熱의 有效利用에도 配慮가 要求되도록 되어있습니다. 現在 建設中の 橫浜市の 都市 쓰레기用的 燒却 「플랜트」는, 國內에서 最大級의 1日當 1, 200t (3 爐) 로써, 100 萬人的 人口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에 対応하는 能力을 지고 있습니다만, 併設되는 「쓰레기 燒却發電設備」는, 國內 最高水準의 2萬2, 000kw에 達하고, 「플랜트」에 使用되는 電力의 全部를 自力으로 내고, 余裕電力은 溫水 水泳場 等에도 使用하고 있습니다.

社會를 人体라고 한다면, 「쓰레기」라는 것은 老廢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 處理가 停滯되면 健全한 生活을 營為할 수 없고, 따라서 쓰레기의 効率的 處理는, 地球의 健康管理에 不可缺한 技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廢棄物의 發生 그 自体를 抑制하는 減量化, 또는 쓰레기의 再資源化가 큰 問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카」로써도 만들기, 팔기만을 위한 것만 한다는 것은 容恕되지 않는 일이며 製品이 必要없게 되었을 때의 뒷처리, 材料의 「리사이클」까지 包含해서, 開發 当初부터 一貫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事業을 하고 있는, 開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禮儀」라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5. 地球環境問題에 관해서

다음은, 地球環境問題, 特히 地球溫暖化에 關해서 말씀드립니다.

地球環境問題는, 전에도 말한 것같이 酸性雨를 비롯하여, 地球溫暖化의 原因이 되는 CO₂, 「오존」층의 破壞에 이르는 「프레온」 對策, 더욱이 砂漠化現象等, 여러 問題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 등이 어떤 因果關係의 밑에서 發生하고, 어떻게 複合되어 地球에 惡影響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現時點에서는 科學적으로 明確하게 解明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에는 最近 數年, 놀라운 程度로 많은 環境學者가 出現하고, 이 問題에 대해서 新聞, 雜誌도 떠들적하나, 지금의 狀況은 「약간 『무드』에 흘러가 버려지는」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다만, 이 問題는 역시 從來의 産業公害防止型的 對策과는 틀린 性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地球温暖化의 原因이 되고 있는 CO₂, 自体가 過去의 公害問題의 原因이 되었다라는 有害物質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対策技術에 대해서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CO₂를 捕獲할 수 있는 가는 거의 目標은 서있고, 저희들도 研究開發을 하고 있으나 제일 問題인 것은 捕獲한 CO₂를 어디에 버리는가 하는 점과, 捕獲하는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發生한 CO₂의 處理는 勿論이지만 CO₂의 發生 그 自体를 어떻게 抑制하는가의 問題가 더욱 重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即, CO₂의 發生은 「에너지」問題와 表裏一体의 關係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發電「플랜트」等の 熱機關의 效率을 높여 CO₂의 發生量을 낮추고, 또는 省「에너지」를 더욱 徹底히 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利用을 擴大하는 方法이 現實인 対策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LNG 複合發電, 石炭 GAS 化複合發電 等に 의한 「에너지」의 高 效率化 그외 原子發電, 地熱發電, 風力發電 등, 化石燃料를 利用하지 않는 發電「플랜트」, 더욱이 「코제네레이션」 等の 省「에너지」 設備에 힘을 쓰는 한편, 「에너지」의 再利用이라는 觀點에서, 地下鉄의 廢熱을 利用한 地域 冷暖房 「플랜트」等도 實用化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側面은, 大氣汚染과 廢棄物의 問題가 눈에 보일 程度로 發生하고 있는 것에 대해, 地球温暖化는 理論的으로는 알고 있으나 現實의 世界中에서는 아직도 明確한 形態로 影響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医学에서 말하면 「予防 医療的」인 色彩가 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음」이라고는 할 수 없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重要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世代에게 어떤 地球을 남겨 주어야 하는가가 지금의 물음입니다」라고 理解해야 합니다.

以上으로, 地球環境問題는 從來의 公害防止 対策과는 다른 次元의 問題이며, 日本, 韓國을 包含한 全 工業國의 國際協調을 통해, 이른바 「地球 全体問題」로써 着手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6. 環境問題와 國際協力에 대해서

以上으로 말씀드린 것과같이, 地球環境問題와 國際協은 꿈을래야 꿈을 수 없는 關係이며, 그렇다면 具體的으로 어떤 態度的 協력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環境裝置 「메이카」로써의 立場으로 말씀드리면, 이 問題는, 저희들의 環境保全技術, 省「에너지」 技術을 國際社會 속에서 어떻게 役割시킬 수 있는

가입입니다. 그境遇, 日韓兩國으로서, 于先 눈을 돌려야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人口가 많고 急速히 工業化가 進展되고 있는, ASEAN을 中心으로 한 아시아 諸國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나라 등에게, 단순히 必要한 裝置와 「플랜트」를 輸出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相對國에게 環境保全技術을 뿌리내리게 하고, 그것을 키우게 하는 것에도 配慮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를 위해서, 設備의 製作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工業力을 總活用하고, 技術移轉을 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또한, 環境保全設備는 그것으로 무엇인가 生産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에 必要하는 經費는 全部 當該國의 經濟力 속에서 吸收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아시아 諸國에게는, 그것이 큰 負擔이 되기 때문에, 나라별로 여러 가지 支援이 必要하게 됩니다. 그런 意味에서 環境保全設備의 設備코스트를 낮추는 工夫, 各國의 狀況, 必要性을 包含한 環境保全設備의 開發이 今後의 課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으로, 日韓兩國間의 協力에 對해서 생각해 보면, 「플랜트」의 分野에서는, 「프로젝트」의 計畫, 設計「엔지니어링」, 機資材의 調達, 現地建設工事 等に 對한, 相互間의 자신있는 分野를 担当하는, 分業體制를 確立하고, 더욱 經濟的인 環境裝置를 供給하는 것이 現實的인 協力方法이며, 이것이 아시아 諸國의 地球環境保全에 貢獻하는 한가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 맺는 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日本, 韓國은 世界에 으뜸가는 先進國工業國이고, 兩國의 「물건 만들기」의 힘에 의해 世界에의 貢獻分野도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世界 各國으로부터의 兩國에 對해 期待도, 以前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50年, 100年の 歲月을 지나서도 日韓兩國이 世界의 工業國으로써 繁榮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이면, 後世 「그 環境保全技術로서 21世紀의 地球의 危機는 구해졌다」라고 傳해줄 수 있는 國際貢獻이 될 수 있을 것을 念願하고 저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感謝합니다.

〈第2分科會〉
(産業協力分野)

코 멘 트

샘표食品工業(株)會長 朴 承 復

지금 紹介받은 샘표식품공업(주)의 朴承復입니다. 三菱重工業의 弘津 副社長님의 구체적이고도 성의있고 건설적인 內容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環境保全에 관한 문제는 대기오염, 폐기물, 지구 환경보전, 그 어느 하나도 重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20세기의 工業發展過程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한정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全人類의 생존권에 관한 問題입니다. 따라서 環境關係技術은 全人類를 위해서, 특히 독점되어서는 안되고 이는 公開되어서 기술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技術協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兩國은 그간 오랫동안 기술협력과 技術移轉 問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일간이 기술격차나 기술이전은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具體的인 方法論에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항상 전횡적인 방향으로 檢討한다고만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韓國側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양국의 過去에서 연루되는 감정의 앙금을 清算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한국이 追求하는 技術移轉을 일본측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늘날까지 기피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日本이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동안 日本은 또 한단계 앞선 기술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日本 技術보다 한단계 아래기술을 이어받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도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특히 環境關係技術에 있어서는 한국은 아직 不毛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측의 적극적인 技術移轉은 결과적으로 일본측에 많은 利益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韓日兩國이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번영을 주도하고자 하는 同伴者的인 관점에서 새롭게 成熟한 韓日關係를 정립해 나가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弘津 副社長님이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양국은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나누어 分業體系를 확립하여 현실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아시아의 地球環境保全에 공헌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韓日兩國의 환경보전 기술에 의하여 21세기의 世界地球危機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길이 後世에 남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서로가 마음을 비우고 참다운 동반자로서 日本側의 決斷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새출발을 할수있기를 바라면서 제 所見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石川島播磨重工業(株)取締役 國際本部長 野村 滿郎

방금 紹介받은 石川島播磨重工業의 野村입니다.

방금 三菱重工業의 弘津 副社長으로부터 환경문제의 본질을 추구하는 대단히 폭넓은 소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三菱重工業에 계신 분이 라고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IHI도 환경관련주기를 提供하면서 이 환경보전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弘津 副社長이 말씀하신 주제발표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하는 形式이 되겠습니다만, 環境問題 특히 한국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日本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한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問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현재 日本에서는 年間 쓰레기가 5천만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의 80%를 2천개소의 쓰레기 소각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앞으로도 日本에서 점점 増加할 것이고 이에따라 1995년에는 쓰레기의 85%가 燒却될 예정입니다.

日本에서는 왜 이처럼 소각율이 높을까요? 쓰레기를 埋立할 장소의 여지(壽命)가 8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日本의 쓰레기는

태워질 運命에 있는 것입니다. 즉, 태우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韓國의 경우를 보면, 현재 埋立이 대부분이고 소각은 2%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大都市 주변에서는 日本과 같이 매립지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埋立地로부터의 악취, 배수등의 2次公害를 생각할 때 역시 대폭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2천년까지 145개소의 燒却爐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처리에는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弘津 副社長께서 기술적인 소개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소각시설은 각각의 市町村 管轄下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市町村에서는 쓰레기 行政의 일환으로서 用地確保에서 소각로의 형태, 地域과의 콘센서스조성등으로 環境對策保全을 충분히 강구해 가면서 계획, 설계, 건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韓國에서도 쓰레기소각이 앞으로 급증해 갈 것인바, 일본의 경험을 살려서 計劃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向後 쓰레기소각의 방법을 생각할 때 있어서의 유의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에 대한 哲學의 問題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종래의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리사이클의 문화로 轉換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도 다시 使用할 수 있는 것은 회수, 재생, 재이용하는 싸이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워 버린 뒤에도 그 에너지를 최대한 回收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弘津 副社長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熱을 회수한다든가 發電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國家的 프로젝트로 高效率 쓰레기발전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을 實踐하고 있는 例가 있습니다. 東京의 衛星都市이며 약3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즈다라는 市の 事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會社도 소각로를 납입한 예도 있으며, 그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즈다리사이클문화센터라는 名稱을 가진 것으로서, 쓰레기 소각을 중심으로 한 빅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회사의 소각로를 核心으로 해서 자원의 재이용과 잉여열을 최대한 도모하는 리사이클 處理시스템을 도입한 市民의 커뮤니티인 것입니다. 잉여열을 이용해서 온수플, 온실원에, 자가발전, 급탕등에 活用하고 있으며 또한 回收되어 재생한 물건을 아주 특별히 싼 가격으로 販賣하는 리사이클플라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들 풀이나 플라자가 市民의 휴식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쓰다시에서는 쓰레기를 媒介로 해서 넓어지는 사회 활동 즉, 방해물인 쓰레기를 活用해 市民의 협력이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發想을 하기까지 결코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技術的인 관점으로부터의 어프로치입니다. 소각로를 선정하는데 있어 發生하는 쓰레기의 조성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韓國에서는 주방 쓰레기등 水分이 많은 쓰레기가 1/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소각하기 위한 燒却爐의 선정방법이 중요합니다. 分離別 收去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쓰레기의 칼로리는 어느정도인가, 埋立地는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등 여러가지 要素가 얹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 最大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각로의 選定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實情에 맞는 엔지니어링을 해 최적의 시설을 導入하는 것이 그나라 쓰레기문제의 將來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日本으로부터의 技術移轉도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웃인 中國市場에 있어서 韓日의 협조체제에 의한 공략방법이 앞으로의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中國은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酸性雨는 韓日共通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韓日間의 협조방법을 좀 연구하면 앞으로 하나의 비지니스찬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쓰레기문제를 中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産業研究院 日本研究센터 所長 金 都 亨

방금 소개받은 産業研究院의 金都亨입니다.

우리 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環境問題가 다루어진 것은 불과 2년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兩國間에는 종래의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습시다만, 그것이 많은 結實을 보고있습시다만, 아직

양국간에는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새로운 기술협력의 場으로서 환경 문제가 登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분야도 그만큼 넓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發表해 주신 내용은 특히 三菱이라고 하는 특정기업의 環境技術開發 상황이긴 합니다만, 日本 全體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개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요약해 주셔서 많은 參考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964년에 三菱이 SOx對策에서부터 지금 현재 겨우 국제협력을 하는 段階에까지 이르렀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30년의 역사가 걸리고 많은 研究開發 投資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선진국과 과연 어떤 分野에서 협력을 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몇가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韓國의 경우는 역시 60년대,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重化學工業化로 그동안의 경공업구조를 高度化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공해라든지 環境問題는 상당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日本이 한국에 대한 技術移轉 내용에서도 역시 공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만큼 공해방지시설, 환경보전기술등이 빠질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環境이나 産業이나 또는 환경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企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나등에 대해서 많은 論難이 있는 것을 볼때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또한 社會적으로 볼때에도 公害追放市民運動이라든지 쓰레기줄이기 전국캠페인등이 우리나라에서 活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눈뜨기까지 한세대가 걸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國이나 日本이 마찬가지로 결국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企業이 산업발전을 우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技術의 개발과 이용체계가 여전히 效率 제일주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兩國의 산업구조가 重厚長大型에서 輕薄短小型으로 高附加價值産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러한 모든 技術의 개발과 이용체계가 아직 효율 제일주의로 강조되고 있어 좀처럼 환경과의 조화, 사회와의 조화라는 側面이 또는 국제경제와의 조화측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冒頭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약1세대가 걸려야 겨우 環境에 눈을 뜨고, 또한 환경을 산업발전의 축으로서 생각해야 하므로 業界에서 이 분야에 대

해서 決斷을 내리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地球環境問題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韓中日의 동아시아협력체제가 強化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發表論文에 대해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地方自治團體가 앞으로 환경문제에 기본적으로 對處해 나갈 경우, 環境關聯 專門家の 부족입니다. 전문가의 양성, 이것이 제일 重要な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모처럼의 機會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新聞紙上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리우선언이후에 CO₂規制를 2천년까지 90년도 水準으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인 공약을 한 것이 바로 엇그제같습니다만, 최근에 通産省의 계획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즉 原子力發電 용량을 5천5백만톤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차질이 생겨 4천5백만톤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日本이 國際的인 약속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三菱은 企業次元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만 企業立場에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稅制上的 조치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公害防止 技術開發投資가 요즘같은 불황상황 하에서도 전체설비투자에서 어느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습니다만, 몇가지 質問과 所感を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金所長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우선 日本의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立地關係로 처음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電力會社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원자력에 대신해서 역시 클린에너지인 LNG, 즉 앞으로 가스의 時代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클린에너지인 LNG를 使用하는 계획이 부상하고 있으며, 각 전력회사에서도 이것의 設置가 역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종래와는 다른 高溫가스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종래에는 1300도였던 것이 1500도 또는 1600도를 目標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클린에너지로 전력의 消費量 또는 전력의 需要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의 不況속에서 공해방지에 대한 投資가 계속되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自治團體가 중심이 된 쓰레기소각장은 것은 현재 日本에는 대단히 불황입니다만, 공공사업은 필요이상으로 景氣扶養策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公共事業이라는 면에서 자치단체에서의 쓰레기소각 計劃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래 日本國內에서의 쓰레기처리 소각메이커들은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에 있어서는 國家의 補助金이 수십퍼센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國家의 보조금과 자치단체의 돈을 합쳐서 커다란 소각로가 各都市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현재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公害關係에서 특히 전력관계의 설비는 종래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不況때문에 또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公害防止對策을 하고있는 메이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종래부터 공해방지설비 또는 省에너지설비문제에 있어서는 稅制上的 특별한 혜택이 있어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景氣變動이 있으면 특별한 稅制의 폐지여부 논의도 나옵니다만, 省에너지라든가 공해방지라는 稅制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거의 변경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여러가지 意味에서의 경기부양대책이라는 면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적용범위를 넓혀 특별한 稅制上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以上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河村입니다.

조금전 金所長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알 아시다시피 최근 日本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環境基本法을 둘러싼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종래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이라고 하는 소위 典型的인 7가지 公害를 규제하는 공해대책기본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法律을 포괄해서 새로운 과제인 地球環境問題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체계의 정비가 지금 進行中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環境問題에 있어서 또하나의 특징은 加害者와 被害者의 식별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論議되고 있는 환경기본법도 그와같은 관점에서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기업, 국민 각각의 입장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自主的이거나 자율적인 活動에 의한 성과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와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가 활발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첫째 환경악세스먼트라는 것에 대한 法制化 問題 그리고 環境稅를 포함한 경제적인 수법에 대한 導入問題등 두가지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經濟的인 수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부 유럽에서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國會에 상정되고 있는 환경기본법 원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우선 각종 경제적인 手法에 메리트, 디메리트를 충분히 調査研究해 보자, 그리고 나서 내용에 따라서 국민적인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종합적인 국민의 포괄적인 合意를 이루어 국제적인 협조도 꾀하면서 최종적인 것을 도출하자는 알기어려운 이러한 스탠스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的인 手法에 관해서는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토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 최근의 일본의 環境問題 움직임으로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관한 자주적인 행동지침을 각 기업이 表明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앞으로의 環境問題에 대한 규제책을 극력 배제하고 싶다는 생각과 취업 또는 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생각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경제의 안정적 내지는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省에너지, 환경보전이라는 三位一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대부분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金所長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면서 실현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선은 서로간에 協力해 나가자는 것은 더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技術의 移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일 첫째는 이러한 국제적인 環境技術의 移轉에 의한 省에너지 또는 환경개선의 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현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으로서 環境技術의 移轉에 공장의 조업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대단히 로칼리티가 높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효과가 있는 技術設備를 다른 나라에 도입,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술을 이전하는 側도 또는 기술을 수용하는 측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즉각 日本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이와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대량의 人材를 육성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갈길은 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금번의 日本國會에서 성립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環境諸般에 관한 문제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合 同 分 科 會

(交流增進分野,其他)

〈共同議長〉

韓國側：金 珏 中 (株)京紡 會長

日本側：梅 村 正 司 日興證券(株) 相談役 會長

第2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25TH JOINT CONFERENCE OF JAPAN-KOREA & KOREA-JAPAN ECONOMIC COMMITTEES

1993. 4. 15~16 KYONGJU KOREA

< 全体會議② >

(交流增進分野)

「韓國中小企業技術者の日本에서의 技術研修에 관해서」

(社)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石原増男

大 垣 精工株式会社

社 長 上田勝弘

1. 머리말

(1) 日本企業에 依한 韓國技術者研修는 日韓兩國政府間의 合意에 따라서 政府所管의 研修로써 1984年度부터 實施되어 昨年 1992年度까지 9年間に 合計 1207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結果, 이 研修事業은 兩國政府間의 合意로 1200名을 目標로 했었기 때문에 目標는 達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研修의 目的은 日本企業이 갖는 基礎的 一般的 技術中에서 韓國의 中小企業이 不足되어있는 技術을 日本에서 實地研修함으로써, 韓國의 中小企業의 生産技術基盤을 強化하는 것은 勿論 이 研修로 인해 技術者間의 交流를 通해 兩國間의 人的交流의 擴大를 圖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理由로, 이 研修事業은 機械, 電氣・電子는 勿論, 金屬, 化學, 纖維, 食品 等の 分野에 이르기까지 幅넓은 業種에 걸친 政府關係諸機關 및 各企業의 協力을 얻어 實施해왔습니다.

(3) 日韓經濟協會는 本研修에 따르는 韓國側으로부터의 研修生을 받아들이

는 것에 関連되는 諸種의 業務를 하고 있습니다만, 目標을 達成한 이 機會에 研修事業의 實情을 調査하고 特別히 研修의 効果와 問題點을 把握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企業의 協力을 얻어 「韓國技術研修生에 關한 앙케이트」 調査를 實施했습니다.

(4) 이 報告는 이 調査結果를 整理한 것으로서, 內容은 받아들이는 企業으로부터의 앙케이트 回答을 中心으로 整理했으나 必要에 따라 國際協力事業團 (JICA) 의 韓國技術研修生에 關한 앙케이트 調査結果 및 韓國中小企業 振興公團의 韓國 派遣企業에 關한 앙케이트 調査結果를 引用, 比較했습니다.

(5) 以上으로 머릿말의 說明을 끝내고, 이 다음은 實際로 研修生을 받아주신 大垣精工(株)의 上田勝弘社長으로 부터 그 自身の 会社에서의 經驗을 섞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大垣精工의 上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日韓經濟協會에서 實施되었던 앙케이트 結果의 要點과 当社에서 받아들였던 經驗等에 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當社は 名古屋 (나고야) 의 가까운, 岐阜縣 (기후현) 에 있는 社員 100名 程度의 会社로서 電氣·電子, 自動車 等の 精密 프레스 金型과 프레스 部品을 生産하고 있습니다. 韓國에서 1983年에 合作会社 (富川市) 設立에 參加했고, 또한 1987年에도 合作会社 設立에 參加했으며 1988년에는 國立서울産業大學과 産学姉妹技術提携協定을 締結했고 지금까지 많은 技術研修生과 學生, 先生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韓國人만)

1985年	86年	87年	88年	89年	90年	91年	92年	合計
4名	2名	8名	13名	28名	20名	21名	14名	110名

여기에, 合作会社, 去來会社, 大學의 短期研修를 包含하면 200名 以上이 됩니다.

1. 研修生을 받아들이게 된 動機에 關해서는 가장 많은 것은 技術提携와 資本提携 等の 業務提携의 一環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38%, 다음으로 去來關係를 繼續하기 위해서 20%, 業務關係는 없이 日韓友好增進을 위해서 하는 것

이 3 번째이기는 하나 2 割程度를 占有하고 있는 것이 注目됩니다.

当社の 경우는 去來会社나 合作等の 關係에 拘泥되지 않고 同業社로부터 幅 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当社は 1981年부터 10年 連続해서 出展했던 서울 國際金型展示회에서 親分이 있던 会社로부터 많은 研修生을 받고 있습니다.

2. 韓國의 派遣企業과의 關係에 關해서

(1) 業務上の 關係

第一은 去來關係가 33%, 第二는 技術提携關係가 23%, 第三은 一切 關係가 없는 곳이 23%를 占有하고 있고 어떤 形式이든 業務上の 關係가 있는 것은 全体の 71%에 達하고 있습니다.

3. 研修内容에 關해서

(1) 研修技術

研修技術은 研修生の 希望에 거의 일치한 것이 56%, 일치한 것이 41%, 97%는 肯定的이며 이 傾向은 JICA의 앙케이트 調査에서도 거의 同一했습니다.

当社の 경우 研修内容은 当社와 同業의 会社로부터의 派遣가 100%이므로, 日本的인 技術手法, 工程, 品質管理 等の 研修生 希望에 맞는 것이 圧倒的으로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4. 研修生에 關해서

(1) 技術 레벨

研修生の 技術 레벨은 普通이 77%, 높았다고 보는 点이 18%, 95%는 平均, 또는 그 以上으로 되어 있습니다.

(2) 研修指導

研修生에 關해서 指導는 어떠했나에 關해서 普通이라는 것이 60%, 充分히 되어졌다는 것이 34%로 되어있습니다.

(3) 研修生の 態度

研修生の 研修態度는 熱心이었다가 75%, 普通 22%로 되어있습니다.

(4) 研修成果

研修生の 技術習得結果에 對해서는 普通이 56%, 充分히 達成되었다고 보는 것이 40%로 比較的 높은 結果라고 볼 수 있습니다. JICA의 앙케이트 結果도 거의 同一합니다.

또한, 韓國中小企業振興公團의 앙케이트 結果에 따르면, 研修의 效果로써 技術이 크게 向上되었다 43%, 技術이 多少 向上되었다 25%, 合計 68%가 直接的인 效果를 認定하고 있으며, 이것에 日本人의 勤務姿勢에 感銘을 받았다는 등 技術 以外의 間接效果 23%를 包含하면 91%가 本 研修의 效果를 評價하고 있습니다.

當社の 경우

- ① 研修生の 技術 레벨 - 平均적으로 높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韓國側 派遣企業에서 正確히 人選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② 研修指導 - 當社の 경우 日本語와 韓國語로 指導할 수 있는 理由로 言語의 障壁없이 理解度는 높았다고 봅니다.
- ③ 研修生の 没頭 - 當社は 中國으로부터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中國은 100% 研修態度는 熱心이고, 韓國도 그 程度 熱心이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이지만 觀光氣分으로 온 것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 ④ 研修成果 - 저는 5年前에 日本側 代表로서, JICA, AOTS에 幹部 여러분과 研修生과의 히어링調査로 韓國의 派遣企業에 갔습니다만, 派遣企業의 代表者로부터 総合적으로 效果를 評價받고, 繼續을 希望해 왔습니다.
- ⑤ 研修生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플러스面과 마이너스面

(플러스面)

研修生을 통해 日韓의 相互理解가 깊어졌다는 것이 제일 많은 46%, 다음은 派遣企業과의 協力關係가 깊어졌다는 것이 32%이고, 그렇게 많지않으나 研修生の 着實한 研修모습이 우리 會社의 從業員에게 啓蒙되었다가 14%, 派遣企業의 業績이 좋은 影響을 받았다가 点이 6% 등이 注目됩니다.

(마이너스面)

指導員을 곁에 붙이기 위해서 本來 業務가 疎外되고 있다는 32%는 이것은 本來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받아들이는 기업의 努力에 의해 어쨌든간에 해가고 있다는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經費負擔 (10%)은 물론, 宿舍와 食事 (30%), 事故와 安全衛生面 (25%)에 상당히 負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日韓相互理解가 깊어지는 것이, 當社の 경우 第一로 생각합니다.

5. 言語에 關해서

(1) 研修使用言語

全体的 92%는 日本語, 기타는 韓國語 英語가 各各 3~4% 程度.

(2) 言語에 關한 問題

全体的 69%가 問題가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日本語 能力이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問題되고 있지만 그 代表的 例를 들면

- ①設備, 機械 등의 技術的 說明이 不便함을 느낌.
- ②說明이 理解되지 않아 意志疎通難
- ③理解도가 낮기 때문에 研修에 있어서 사람과 時間을 必要로함.
- ④몸이 아파도 病狀이 전달되지 않음.

當社の 경우에 限해서 말하자면, 技術担当 專務가 韓國語가 能通하고, 一切 言語의 障壁없이, 또한 다른 社員도 一部, 韓國語의 技術專門用語를 理解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日本語와 섞어서 理解度を 높다고 推測하고 있습니다.

6. 研修生の 日常生活에 關해서

(1) 研修場所에서의 人間關係

좋았다는 사람이 79%, 普通 21%, 좋지않았다가 0.

(2) 食生活上의 問題

없었다는 사람이 73%에 比해서, 조금 있다는 사람이 27%로 이것은 꽤 높은 比率입니다. 問題의 大部分은 日食이 입에 맞지 않다는 点입니다.

(3) 宿泊施設의 問題

없다라는 사람이 81%, 조금 있다·있다가 19%,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큰 問題는 通勤圈內的 호텔 確保의 어려운 点. 또는 宿舎費 補助의 増額 希望.

以上으로 食生活, 宿泊施設, 言語 等, 日常生活의 基本部分에 對해서 받아들이는 企業으로서 充分한 対応이 되어있지 않은 케이스도 볼 수 있지만, 生活習慣, 言語 등이 틀린 外國人研修의 어려운 点이 指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當社の 경우 1985年の 第1回 研修生 받기부터 지금까지, 日本式 旅館이 研修生の 專用旅館으로 되어있고, 韓國研修生에 對하여 旅館의 사람들이 理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旅館內에서 自由롭게 김치를 만들 수 있고, 研修生の 입에 맞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食生活에 일체의 不自由는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곰창전골 等 언제든지 旅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都市의 호텔에서는 할 수 없는 環境안에서 研修시키고 있습니다.

(4) 研修以外の活動, 行事의 參加

參加했다는 사람이 圧倒적으로 많은 96%를 占有하고 있습니다.

參加했던 活動・行事의 種類는 21에 達하고 있으나, 上位 5를 들면 工場見學 (24%), 레크리에이션 (22%), 展示會 (15%), 旅行 (14%), 홈스테이 (7%)

當社は, 工場見學, 旅行 等の 一般行事에 參加하는 以外에, 當社の 근처에 있는 「雨森芳洲庵」 (아메노모리 호우슈우안) 의 見學을 義務로 하고 있습니다. 아메노모리는 1990年 5月에 盧泰愚大統領이 來日하셨을 때 宮中の 答禮人事에서, 德川 (도꾸가와) 時代의 朝鮮通信使에 關하여 日本側의 偉대한 學者・外交官이었던 아메노모리 호우슈우를 稱贊하여 全國의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슈우는 日本語와 한글의 辭典을 最初로 만든 人으로서, 그 故郷이 當社の 근처에 있어, 資料館으로 되어있습니다. 研修生 以外의 韓國 친구에게도 언제나 案内하고 있습니다. 目的은 日韓의 友好時代歷史의 一端을 理解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

(5) 日常生活에서의 기타 問題点

조금 있었다는 사람이 全體의 14%를 占有하고 있다.

例를 들면 通勤便이 안 좋다는 理由로 会社側에 每日 送迎을 한다든지 또는 택시를 利用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받는 会社의 가운데는 通勤手段의 確保와 通勤災害에 格別한 配慮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 關係先에 대한 意見・提案

關係先에 對한 意見・提案 중에서 主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韓國側에 대하여

- ① 韓國 내에서 事前에 日本語 研修를 충분히 해줄 것이 제일 많음.
- ② 研修를 마치고 귀국후 인사와 동태의 연락이 全然 없음.
- ③ 帰国後 退社하는 「케이스」가 있어, 받아 들이는 企業으로서는 「호로」 할 수 없음.

(2) 日本側에 대하여

- ① 研修事務수속의 간소화, 統一化를 도모해 주기 바람.
- ② 研修關係비용 補助의 增額을 생각해 주기 바람.
- ③ 研修期間을 탄력적으로 運用해 주기 바람.

과거 8年間의 研修를 통하여 가장 느낀 것은 처음으로 訪日한 韓國 研修生의

帰国前に 日本에 대한 감상입니다. 出発前 그들의 대부분은 日本은 經濟大國이고, 所得도 많고, 交通網과 모든 点에서 優位하며, 日本人은 自家用車와 「마이 홈」을 갖고 있는 무척 優雅한 생활을 하고 있는 國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日本에 와서 數個月의 生活중에서 느낀 日本人은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節約하여 낭비하지 않으며, 基本的으로는 검소한 生活을 하여 会社經營者도 社員과의 關係에서 아주 친절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点 등, 經濟가 發展하는 이면에는 엄한 努力이 있다는 認識을 갖게 된 것입니다. 日本的인 經營, 管理手法과 生産「시스템」도 참고가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研修派遣 企業의 사장이 오히려 연수생의 귀국 後의 勤務 態度가 변했다는 点을 評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当社에서는 研修生の 宿泊旅館앞을 지나는 通勤者가 많기 때문에, 特定者가 當番으로 研修生을 送迎하고 있어 特別히 問題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나라사이가 友好的인 것은 有形無形의 利益이 많다고 생각하며 技術研修는 韓國도 레벨이 높아졌으므로 다음의 차례는 中國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第2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25TH JOINT CONFERENCE OF JAPAN-KOREA & KOREA-JAPAN ECONOMIC COMMITTEES

1993. 4. 15~16 KYONGJU KOREA

<全体會議②>
(交流增進分野)

「韓國中小企業技術者の日本に 있어서 技術研修에 관한 앙케이트結果」

1. 처음에

(1) 日本企業에 의한 韓國技術者研修는 日韓兩國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政府所管의 研修로서 1984年度부터 實施되어, 昨年 1992年度까지 9年間 合計 1207名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結果 이 研修事業은 兩國政府間의 協定으로 1200名을 目標로 했었으므로, 目標는 達成된 셈입니다.

(2) 이 研修의 目的은 日本企業이 가지고 있는 基礎的, 一般的 技術 가운데, 韓國의 中小企業에 不足되고 있는 技術을 日本에서 實地研修함으로써, 韓國의 中小企業의 生産基盤을 強化하는 것은 勿論, 이 研修에 의해 技術者間의 交流을 通해, 兩國間의 人的交流의 擴大를 期하는데 있습니다.

그때문에 이 研修事業은 機械, 電氣·電子로부터 金屬, 化學, 纖維, 食品 등의 分野에 이르기까지 幅넓은 業種를 通하여 政府關係諸機關 및 各企業의 協力을 얻어서 實施해 오고 있습니다.

(3) 日韓經濟協會는, 本研修에 따른 韓國側으로부터 研修生받는 것에 關連하는 諸種의 業務를 하고 있습니다만, 目標를 達成한 이 機會에 研修事業의 實情을 調査하고, 特別히 研修의 效果, 問題點 등을 把握하고 받아들이는 企業의 協力을 얻어 「韓國技術研修生에 관한 앙케이트」 調査를 實施했습니다.

(4) 그리고, 本 報告는 받아들이는 企業으로부터의 앙케이트 回答을 中心으로 하고 있으나, 必要에 따라 國際協力事業團(JICA)의 韓國技術研修生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 또한 韓國中小企業振興公團의 韓國派遣企業에 대한 앙

케이트 調査結果를 引用, 比較하고 있습니다.

2. 調査対象 또는 調査方法

(1) 調査対象

1990~1992年の3年間に韓国技術者研修計画에 의하여 韓国技術者研修生을 받아들인 日本企業 162社를 対象, 그 가운데 回答 企業數는 111社.

	対象企業數 (社)	回答企業數 (社)	回答率 (%)
機 械	70	51	72.9
電氣・電子	38	24	63.2
金 属	22	15	68.2
化 学	19	13	68.4
纖維・食品 그외	13	8	61.5
合 計	162	111	68.5

(2) 調査方法

調査方法: 郵便에 의한 앙케이트 調査

調査期間: 1992年 12月 24日~1993年 1月 31日

調査主体: (社) 日韓經濟協會

(3) 参考資料

國際協力事業團 (JICA) 「第9次韓国技術者研修計画最終評價 앙케이트」

1992年 12月

韓国中小企業振興公団 「対日技能人力研修事業成果分析」

1993年 2月

양케이트 回答内容

1. 研修生을 받아들이게 된 動機에 대해서 (設問番号 1)

제일 많은 것은 技術提携, 資本提携 等の 業務提携의 一環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38%, 다음이 去來關係를 持續하기 위한 것이 20%, 業務關係없이 日韓友好增進을 위해서 하는 것이 3번째이나, 2割程度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注目됩니다.

2. 韓國의 派遣企業과의 關係에 대해서

(1) 業務上の 關係 (設問番号 2-(1))

제1은 去來關係가 33%, 제2는 技術提携關係가 23%, 제3은 一切 關係없는 것이 23%를 차지하고 있음. 어떤 形式이든 業務와 關係가 있는 것이 全体的 71%에 達하고 있습니다.

(2) 事前合意의 有無 (設問番号 2-(2))

事前合意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78%를 차지하고 있음.

조금이기는 하나 事前合意나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研修内容에 對해서

(1) 研修技術 (設問番号 3-(1))

研修技術은 研修生의 希望에 거의 일치한 것이 56%, 일치한 것이 41%로 97%가 肯定的

이런 傾向은 JICA의 양케이트 調査에서도 거의 비슷함.

(2) 研修期間 (設問番号 3-(2))

本 研修의 研修期間은 3個月, 6個月의 두 種類가 있으나 適當하다고 하는 것이 80%, 너무 짧다, 길다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음.

JICA의 양케이트 結果도 거의 비슷한 分布를 보여주고 있음.

짧다고한 理由中에는 3~6個月으로써는 變化에 対応하는 指導를 할수 없다는 意見, 너무 길다라는 이유는 2~3社에서 分割研修를 하는 意見, 또는 研修技術 内容에 따라 期間을 定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意見이 있음.

(3) 研修費用 (設問番号 3-(3))

本研修의境遇는制度的으로는, 받아들이는企業에게費用負擔을請求하지 않는觀點으로,費用은日本政府와韓國側이(政府 또는派遣企業)負擔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앙케이트結果는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 73%, 조금不滿이 19%,改善이必要하다는 것이 8%로 되어있음.不滿·改善의意見은實地研修費,宿泊費,交通費,研修旅行費의補助增額을希望하고 있음.

4. 研修生에 대하여

(1) 技術레벨 (設問番号 4-(1))

研修生の技術레벨은普通이 77%, 높았다는 것이 18%로 95%가平均 그以上으로 되어있음

(2) 研修指導 (設問番号 4-(2))

研修生에 대한指導는 어떠했나에 대해서普通이 60%充分하다가 34%로 되어있음.

研修生自身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JICA의 앙케이트調査에서도 거의同一한結果를 얻고 있습니다.

(3) 研修生の態度 (設問番号 4-(3))

研修生の研修態度는 열심이었다는 것이 75%,普通이 22%

(4) 研修成果 (設問番号 4-(4))

研修生の技術習得結果에 대해서는,普通이 56%,充分히達成되었다고 보는 것이 40%로比較的 높은結果를 보여줌.

JICA의 앙케이트結果도 거의同一함.

또한,韓國中小企業振興公團의 앙케이트結果에 따르면,研修의效果로써技術이 크게向上되었다가 43%,技術이多少向上되었다가 25%,合計 68%가直接的인效果를認定하고 있으며, 여기에日本人의勤務姿勢에感銘을 받았다는等,技術以外的間接效果 23%을包含하면 91%가本研修의效果를評價하고 있음.

(5) 研修上の트러블 (設問番号 4-(5))

研修生과의트러블이있어나 없었나에 대해서 14%는 조금 있었다 함. 이트러블의大部分은研修技術內容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会社側과研修生 사이에서意見이틀려진케이스임.

트러블의發生件數와研修生の日本語能力과의關係로 볼 때,日本語能力이 낮을수록트러블發生이 많은結果가나오고,意思疎通이充分하지 않은

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되어짐.

(6) 研修生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플러스面과 마이너스面

(設問番号 4-(6))

(플러스면)

研修生을 통해 日韓의 相互理解가 깊어졌다는 것이 제일 많은 46%, 다음이 派遣企業과의 協力關係가 깊어졌다는 것이 32%로 分別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研修生의 着實한 研修 모습이 우리社 從業員에게 啓發되었다는 것이 14%, 派遣企業의 業績에 좋은 影響을 준 것이 6% 등으로 注目되어짐.

(마이너스 면)

指導員을 붙이기 爲해 本来 業務가 疎外되었다는 것이 32%, 이것은 원래 더 많았을텐데, 받아들이는 企業의 協力에 의해 補充되었다는 結果라고 생각됨.

經費負擔(10%)은 물론, 宿舎, 食事(30%), 事故, 安全衛生面(25%)로 상당히 負擔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음.

5. 言語에 對해서

(1) 研修 使用言語 (設問番号 5-(1))

全体的 92%는 日本語, 그 외에 韓國語, 英語가 各各 3~4%

(2) 日本語의 레벨 (設問番号 5-(2))

研修生의 日本語레벨은 普通이 43%, 높았다는 것이 18%, 이것에 대해 낮았다가 39%로 다른 項目에 비해 상당히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음.

받아들이는 企業의 意見中에서는 研修生의 日本語 레벨이 充分하지 않고, 조금 더 韓國에서 事前研修을 徹底히 해주길 바라는 것이 많아, 또한 日本語 能力에 따라 研修生을 選拔해주기를 希望하고 있음.

日本語 能力은 直接 研修效果에 影響을 주고 있기 때문에, 今後의 改善이 많이 期待되고 있음.

(3) 研修期間中の 日本語 向上度 (設問番号 5-(3))

全体的 96%는 조금 向上되었다, 向上되었다고 答하고 있음.

JICA의 앙케이트 調査도 거의 一致하고 있음.

(4) 言語에 對한 問題 (設問番号 5-(4))

言語에 對해서 어떤 式이든 問題가 있었다고 하는 質問에 對해서, 全体的

69%는 問題가 있었다고 하고 있음. 말할 것도 없이 日本語 能力이 낮은 理由로 여러가지 問題가 있음. 그 代表的인 例를 들면

- ①設備, 機械 等の 技術的인 說明에 不便을 느꼈다.
- ②說明이 理解되지 않는데서 오는 意思疎通難
- ③理解도가 낮은 理由로 研修에 있어 사람과 時間을 必要로 함.
- ④몸이 아플 때 病狀이 전달되지 않음.

6. 今後的인 받아들이기 (設問番号 6)

이제부터도 機會가 있으면 研修生을 받겠는가의 質問에 對해, 받겠다는 것이 45%, 條件에 따라가 49%, 計94%가 肯定的임.

조건 여부의 主된 조건은 日本語 能力이 있는 것, 받아들이고 있는 会社の 業務「스케줄」에 맞는 것, 연수내용에서 合意되는 것 등.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主要理由는, 지금의 不況에서는 業績不振, 昨年 研修生받을 때 韓國에서의 갑작스런 取消로 顧客側에 困惑을 치르게 한 點, 歸國後 한 번도 連絡이 없는 點 等.

韓國中小企業振興公團의 アンケート 結果에 따르면, 韓國의 派遣企業側의 対応으로써 今後 日本에서의 研修가 繼續 되어질 境遇 參加하겠다는 74%, 考慮中 20%, 그외가 6%로 되어있음.

7. 研修生의 日常生活에 對해서

(1) 研修場所에서의 人間關係 (設問番号 7-(1))

좋았다는 사람이 79%, 普通이 21%, 좋지 않았다가 0% JICA의 アンケート 調査에서는 普通이 30% 強으로 되어 있음.

(2) 食生活上의 問題 (設問番号 7-(2))

없었다고 보는 것이 73%에 대해, 조금 있었다는 것이 27%로, 이것도 상당히 높음. JICA의 アンケート 調査에서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것보다 많음. 問題의 大部分은 和食이 입에 맞지 않다가 理由임.

(3) 宿泊施設에서의 問題 (設問番号 7-(3))

없었다가 81%에 대해서 조금 있었다·있었다가 19%, JICA의 アンケート 調査에서는 있었다, 조금 있었다가 이것보다 많음. 있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大部分이 通勤圈內의 호텔 確保의 어려움 또는 宿舍費 補助의 增額을 希望.

以上으로 食生活, 宿泊施設, 言語 等, 日常生活의 基本部分에 對해서는 받

아들이는 企業으로서도 充分한 対応이 되지 않는 케이스로 볼 수 있으나, 生活習慣, 言語 等이 틀린 外國人研修의 어려움이 指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4) 研修以外の 活動, 行事의 參加 (設問番号 7-(4))

參加했다고 하는 사람이 圧倒的으로 많은 96%를 차지하고 있음.

參加한 活動・行事의 種類는 21에 達하나 上位 5을 들면 工場見學 (24%), 레크리에이션 (22%), 展示會 (15%), 여행 (14%), 홈 스테이 (7%)

(5) 日常生活에서의 그 외의 問題 (設問番号 7-(5))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이 全体的 14%을 차지하고 있음.

例를 들면 通勤의 便이 나빠서 会社側이 每日 送迎한다든가, 택시를 利用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받아들인 会社 가운데는, 通勤手段의 確保와 通勤재해에 格別히 配慮하고 있는 곳도 있다.

8. 關係先에 대한 意見・提案 (設問番号 8)

關係先에 對한 意見, 提案 가운데 重要な 몇가지를 들면

(1) 韓國側에 對하여

① 韓國內에서의 事前 日本語研修을 充分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많음.

② 研修 終了後 歸國後 人事, 動態의 連絡이 전혀 없음.

③ 歸國後 退社하는 케이스가 있어, 받아들이는 企業이 호로할 수 없음.

(2) 日本側에 對하여

① 研修事務手續의 簡素化, 統一化를 期해 줄 것

② 研修關係 費用 補助의 增額을 생각해 줄 것

③ 研修期間을 彈力的으로 運營해 줄 것

〈合同分科會〉
(交流增進, 其他)

對日技能工研修를 다녀와서

韓 生 計 器 (株)
課 長 崔 承 培

오늘 韓日兩國의 중진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인 第25回 韓日・日韓民間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中小企業의 한 간부로서 한일양국정부간 합의로 이루
어진 “中小企業振興公團”의 對日技能人力研修프로그램에 참석하여 日本
AOTS(海外技術者研修協會)에서의 3주간의 一般研修와 2개월 반 동안의
特別研修 즉 관련수입회사에서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에 참석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日本
滞在期間中에 틈틈히 시간을 내어 돌아보았던 日本社會의 현상등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점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저와 같이 새로운 研修프로그

램에 참석하실 분들께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제식민통치 36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에게도 日本에 대해 긍정적으로 評價하게 되면 마치 賣國奴로 평가를 받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애써 과거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의 옛어른들을 통해서, 또한 國民學校로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던 일제 억압 36년! 칩거의 암울함 속에서 民族의 자존마저 송두리째 빼앗겼던 歷史的 사실들이 우리를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民族의 수난사에 얽매어 우리 스스로의 발전 도모에 게을리 하는 誤謬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거둬되는 난항 및 國際政治經濟의 혼돈속에서 우리민족의 활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같은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다할 자원도 없는 日本이 세계 제일의 經濟強國을 이룩했던 저력은 무엇인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4주간의 中小企業研修院의 일본어 공부를 끝낸 연수팀 일행은 드디어 日本의 관문인 成田空港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到着하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日本人的 親切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관원들이 여행자들의 짐검사를 할때는 “어서오십시오”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짐검사를 마친후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세관원이 직접 가방을 추스려 주는 모습이 우리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버스를 이용해서 横浜研修CENTER와 東京研修CENTER로 나뉘어서 출발하게 된 연수팀은 각자의 연수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다시금 이곳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귀국할 것을 다짐하면서 東京研修CENTER行 버스에 올랐습니다.

日曜日 오후의 한가한 東京市內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버스안에서 내다 보는 시내의 풍경은 6월의 밝은 햇살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 작은 골목골목마다 흰색페인트로 깨끗하게 그어져 있는 교통표지가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2시간남짓 달려가 도착한 곳은 東京의 외곽에 자리한 研修CENTER였습니다. 곧 여장을 풀고 CENTER내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숙소를 배정받은 우리는 간단한 차림으로 차려입고 로비에 모여서 앞으로의 研修等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東京研修CENTER에서의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는 CENTER內의 소정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교육은 日本中小企業의 실태와 Q.C활동의 전개방법, 사례소개등이었으며, 현장견학을 통해 日本企業의 성장의 모체가 무엇이었던가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수중 日本家庭訪問프로그램은 日本人들의 좁은 공간을 사는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소득분배를 해 나가고 있는 日本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 집도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가정도 中小企業을 경영하는 전형적인 日本家庭이었습니다. 사전에 中小企業을 경영하는 사장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문했던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좁은 공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相對적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日本人들의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까닭은 우선 그들이 사는 땅이 좁다는 데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韓半島의 1.5배 크기의 땅에서 1억 2천만의 인구가 살아야하는 데다 山岳地帶가 전체면적의 80%를 넘는, 生活이 거의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日本人들의 작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活用하는 노력은 필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말로 불박이장인 “오시이레”는 평소에는 그냥 벽처럼 보이지만 미닫이 문을 열면 이불과 옷들이 차곡차곡 쌓인 어김없는 장롱이었습니다. 大型 自動車가 인기 있는 우리와는 달리 장난감 같은 소형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經濟的 節減效果와 함께 좁은 공간 활용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큰것을 지향하는 日本人의 지혜가 日本이 결코 작은나라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日本研修프로그램중 마지막인 研修旅行은 3박 4일간 日本東北地方의 작은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中小企業의 성공적 경영 및 Q.C활동등에 대해서 보고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이와끼”에서의 상반(常磐) HAWAIIAN CENTER의 Q.C활동사례를 접한 저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Q.C를 이해할때 製造MAKER에서의 제조품에 한정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만족할 효능을 유도하기 위한 製造MAKER만의 활동으로 여겨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반(常磐)의 Q.C활동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던 좋은 예이었습니다. 석탄산업의 合理化에 따라서 전신한 회사가 日本 초유의 SERVICE업체로서 발전하기까지의 상반(常磐)의 Q.C활동은 기립박수를 받기에 충분

한 것이었습니다.

발족이래 SERVICE産業에 관한한 非專門集團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력으로 KNOW HOW를 체득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매상과 이익중심지향이 강하고 고객의 NEEDS를 생각하지 않고 PRODUCT OUT적 경영에 급급하던 상반(常磐)이 전반적인 經濟環境 및 生活環境의 어지러운 변화속에서 종래의 방법에 의한 企業運營의 한계를 느끼고 품질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經營基盤을 확립하기 위하여 근대적 경영수법으로서 T.Q.C를 導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常磐)의 T.Q.C도입의 배경이었으며 이런 것의 바탕위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의 企業運營을 위한 상반(常磐)의 각종 노력이 참으로 위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例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길 상반(常磐)의 상품과 상품의 품질은 무엇인가? 라는 基本的 질문에서 유추해 낸 상반(常磐)의 企業運營의 진로를 한 단계씩 LEVEL UP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질보증 제일로 PRO집단을 지향 좋은 회사를 만든다” 라는 표어 아래 일상관리와 방침관리를 실시하기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관리 감독자는 탄광으로부터의 전신이고 탄광시대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業務方式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業務進行狀態를 CHECK하는 데에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부하직원은 “순조롭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CHECK를 완료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부하직원에게 돌리는 등의 감정이 앞서고 자기반성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82년에 T.Q.C를 도입하고 타사의 관리방법을 지도받아 공부하여도 MAKER에는 가능하여도 JHC는 인력만을 보더라도 LEISURE産業은 MAKER와

다른등 MAKER方式을 흉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JHC는 “데밍상위원회”에 TQC도입후 처음으로 Q.C진단을 의뢰하여 審査委員들로부터 “관리를 알지 못한다. 管理者는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가?” 등의 혹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직후 故 石川(日本の 유명한 Q.C관련학자)로부터 “SERVICE업도 MAKER도 Q.C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받고서 비로소 관리의 방법을 再整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직무기능 전개를 3차 전개까지 실시 운영하여 일상관리와 방침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에 의해서 Q.C에 적응이 점점 定着化 되어 가는 과정을 귀담아 들으면서, 목표한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 노력하는 日本人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인가 AOTS의 研修擔當者と 일요일 점심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東京 연수팀의 팀장이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담당자인 게이코 아카이씨와 우리연수팀의 통역담당자와 3명은 電鐵을 타고 20여분 이동하여 한 조그만 음식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OPEN하지 않은 정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나머지 質問을 하게 되었고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의 주된 메뉴는 우리말로 “장어덮밥”이었는데 이곳은 OPEN부터 營業이 끝나는 시간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入場하기 위해서는 OPEN하기 1시간 전부터 기다려야만 자리를 잡고 앉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従業員들의 전통의 맛을 그대로 있다는 자랑과 함께 손님에게는 오로지 親切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日本社會에서는 전통이 사회적으로 重視되고 있고 오랜전통은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能力과 技術이 있으면 血緣關係를 떠나 좋은 가훈의 계승자가 되어 당당히 一家의 長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의 특성속에서 장인정신이 배양된 것입니다. 장인정신과 그에 따른 전통의 맥 잇기로 유명한 日本人들의 장인정신의 보편화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가지의 재주를 가져야 한다는 日本人의 사고가 日本을 技術先進國으로 만드는데 크게 뒷받침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3주간의 시간들의 아쉬움을 안고 大阪의 수입회사에 온 후 AOTS大阪研修CENTER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짜여진 教育內容에 따라서 理論教育과 現場實習 등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輸入會社인 YAMARI의 핵심인 技術部の 부단없는 연구노력을 現場에 설치된 기계설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作業者の 작업활동 및 균일품질의 製品製造를 위한 정밀 지그의 제작 및 철저한 상품선별등 오랜 傳統에서 얻어진 경험 아래 한 곳도 어긋남 없이 一絲不亂한 모습이 수입회사에 대한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2개월 남짓한 이 기간동안 열심히 지그와 裝備物을 스케치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必要한 도면, 서류등을 정리하여 조금씩 쌓이는 資料들을 보며 귀국후의 計劃들을 머리속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제는 日本人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우리화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日本文化의 원

류로서의 대한의 自負心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최근 세사의 매우 짧은 期間을 제외하고 우리는 줄곧 日本에 先進文化를 전달해 주는 자랑스런 民族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훌륭한 역사를 기억하고 이 시점에서 日本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며 日本을 능가하는 國民的 底力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以上과 같이 많은 경험중 일부지만 3개월의 研修期間中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젊은 일꾼들이 先進日本의 産業現場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산업에 적응 노력하여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合同分科會〉
(交流增進分野)

韓日・日韓 經濟人FORUM에 對하여

(社) 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洪 性 佐

1. 韓日經濟人FORUM의 設立 經緯

- 1) 지난해 韓日兩國의 頂上會談時 韓日兩國의 貿易 不均衡 是正과 産業技術協力을 위해 7가지 事項을 합의했습니다.
- 2) 그 가운데 특히 重要的 事項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韓國側이 제의한 産業技術協力財團 設立이며, 또다른 하나는 日本側이 제의한 韓日經濟人포럼입니다.
- 3) 특히 중요한 것은 兩國 政府가 합의한 協力方案 實踐計劃에 의하면 "韓日經濟人포럼에서 건의하는 內容에 대해서는 兩國 政府가 이를 尊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FORUM의 構成

- 1) 포럼은 本委員會와 專門委員會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 2) 本委員會
 - 韓國側은 韓國貿易協會 朴龍學 會長께서 委員長을 맡으시고, 財界元老 5인이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 日本側은 日本經濟團體連合會 平岩 外四 會長께서 委員長을 맡으시고, 財界元老 5인이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 3) 專門委員會
 - 韓國側은 제가 委員長을 맡고 있으며 經濟團體, 研究院에 계시는 6분이 參與하고 있습니다.
 - 日本側은 日本國際經濟交流財團의 赤澤 璋一 會長이 委員長을 맡으시고 經濟界, 研究院에 계시는 7분이 參與하고 있습니다.
 - 事務局은 韓日・日韓 兩經濟協會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 會議開催

- 1) 本委員會

- 제1차 회의 1992년 10월 9일 日本 東京
- 제2차 회의 1993년 4월 15일 韓國 서울

2) 專門委員會

- 제1차 회의 1992년 10월12일~13일 日本 東京
- 제2차 회의 1993년 1월12일~13일 韓國 서울
- 제3차 회의 1993년 3월29일~30일 日本 東京

3) 專門委員會는 2개월에 1회 정도, 本委員會는 專門委員會의 進歩狀況에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報告書를 작성하여 兩國頂上에게 報告할 수 있도록 日程이 計劃되어 있습니다.

4. 專門委員會 討議 事項

1) 第1次 會議

- 한일양국의 경제현황 분석
- 한일양국의 중장기 경제전망

2) 第2次 會議

- 아세아의 정세변화 분석
- 아세아·태평양경제권에서의 한일의 역할

3) 第3次 會議

-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5. 會議進行 狀況

- 1) 이 포럼회의는 最終 報告書를 作成하여 韓日 兩國의 頂上에게 報告가 끝날때까지 非公開로 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아직 兩國 經濟人 여러분들에게 中間報告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2) 그러나 韓日間에는 政府·民間간의 많은 會議가 있습니다만, 이 經濟人포럼이 가장 진지하고 具體적인 협력방안을 論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3) 또한 過去에 韓日21世紀委員會가 설치되어 양국간의 여러가지 協力方案을 討議한 바 있습니다. 21世紀委員會는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委員會였지만 經濟人포럼은 經濟分野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있는 方案을 討議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4) 3회에 달하는 會議에서 총론적인 부분은 討議를 끝냈으며, 앞으로는 兩國間的 구체적인 協力方案을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쪽이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兩國의 經濟人 여러분들께서 韓日 兩國의 協力을 위해 과거 經驗을 했거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兩國의 포럼事務局에 提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第2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25TH JOINT CONFERENCE OF JAPAN-KOREA & KOREA-JAPAN ECONOMIC COMMITTEES

1993. 4. 15~16 KYONGJU KOREA

<合同分科會>

(交流增進分野)

「日韓・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에 대해서」

(財)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石原増男

1. 設立의 経緯

(1) 1992年 1月に開催된 米야자와総理와 노태우大統領의 首脳会談에서 兩國間の 貿易不均衡 및 産業科学技術協力 等の 問題에 對해서 具體的인 對策을 講究할 것을 協議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그후 兩國政府間の 繼續的인 協議의 結果 1992年 6月 30日 兩國政府間에 「日韓貿易不均衡是正等을 爲한 具體的 實踐計畫」이 合意되었습니다. 이 合意中 重点項目으로써 兩國은 各各 1992年末까지 별도로 「産業技術協力財團」을 設置하여 兩國間の 産業技術協力事業을 實施하기로 되었습니다.

(2) 이러한 兩國政府의 合意에 따라 兩國의 民間經濟界는 財團設立의 準備에 着手했습니다. 日本側은 經濟団体連合會와 日韓經濟協會가 募金 및 設立에 따른 諸準備를 担当하여 民間企業의 多大한 協力으로 1992年 12月 25日에 設立되었습니다. 韓國側은 韓國貿易協會 및 韓日經濟協會가 關係機關과 協議하여 設立準備를 推進하여, 1992年 8月 21日에 設立되었습니다.

2. 財團의 目的

兩 財團의 目的은 財團의 規約(日本:寄附行為, 韓國:定款)에 따라 거의 同等한 內容이 規定되어 있으며, 兩國의 産業技術協力の 促進을 도모하고 兩國間의 友好關係 維持 및 增進에 寄与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財團의 基本財産 및 事業經費

財團의 基本財産은 兩國 共히 民間經濟界로부터의 寄附에 의해 充當하기로 되어 있으며 最終目標은 各各 10億圓으로 되어 있습니다. 事業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運營利益과 政府로부터의 補助金 등의 支援으로 充當하기로 되어 있으며 1993年度는 日本側이 6億圓 韓國側이 36億圓이 결정되었습니다.

4. 財團의 任員

日本側은 理事 29名, 監事 2名이며 理事長에는 羽倉信也 日韓經濟協會 會長이 就任하고, 韓國側은 理事 11名, 監事 2名으로 理事長에는 朴龍學 韓日經濟協會 會長이 就任하였습니다.

5. 事業內容

(1) 實質의 初年度인 1993年度의 事業計劃은 이미 日韓兩財團에서 決定되었으며, 現在 具體的인 實施를 爲해 그 準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日本側 財團事業

日本側 財團은, 이 財團에서 實施possible한 事業은 韓國의 産業技術力の 強化・向上을 爲한 基盤이 되는 事業이라고 생각하여, ①産業技術人材의 育成 ②企業 또는 工場의 經營管理, 生産性・品質向上 등을 위한 診斷과 助言 ③産業技術交流 미션의 수용 ④韓國의 産業國際競爭力 向上 등의 세미나 ⑤産業技術協力 등에 關連한 事項의 調査實施할 予定입니다. 이들 事業을 實施하는 경우, 対象이 되는 韓國企業은 中小企業을 主対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事業의 實施는 財團이 獨自的으로 隨行하는 것과 專門機關에 委託하는 것이 있습니다.

(3) 韓國側 事業

韓國側 事業은 ①人材交流事業 ②日本의 專門家에 의한 指導 ③研究者를 日本에 派遣 ④理工系 留學生에 對한 獎學金 支給 ⑤各種 세미나開催 등이 主內

容입니다. 韓國側 事業의 實施는 各各 專門機關에 委託하기로 되어있습니다.

6. 連絡協議會

이 事業은 兩國財團이 各各 그 事業을 實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中에는 類似事業과 相互關連된 事業이 있기 때문에 이들 事業의 實施 및 經費分担 等에 對해서 兩財團이 連絡協議會를 設置하여 調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 끝으로

財團의 大部分 事業은 처음으로 實施되는 것이기 때문에 實施過程에서 數시로 檢討하여 修正을 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財團事業은 財團 및 關係機關의 힘만으로는 큰 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參席해 주신 企業團體 여러분의 支援과 協力을 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93年度事業計畫一覽表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사업항목	대상	주사업내용
1. 산업기술 인재육성 (1)업종별 중견 기술자 연수	5 분야의 중견 기술자 (과장, 과장 대리급)	일본어 연수, 강의, 공장실습 및 견학 등 · 기술, 생산, 품질 (TQC 포함) 의 각 관리 및 사례연구 등 · 원가, 납기, 자재, 노무 등의 각 관리
(2)산업기술 연구원 장기연수	5 분야의 기업 연구자 (과장, 과장대리급)	일본의 민간연구소에서 전문분야의 장기 연구, 기술개선, TQC, 에너지 절약대책 등
(3)중간관리직 일본 단기연수	5 분야의 중견관리직 (부장, 과장급)	강의, 공장견학 등 · 경영관리총론, 기술생산품질 (TQC 포함) 의 각 관리, 연구개발, 원가자재재고 등의 관리 연구개발, 원가재고 등의 각 관리, 마케팅 등
(4)이공계 청소년 교류사업 (원티 인스티튜트)	젊은 연구자 (박사, 석사급)	일본의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 일본어 연수, 연구소 연수 등
(5)연구자·기술자 교류사업	중견 연구자 기술자 (35세 이하)	일본의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장기연수 (1년)
2. 한국산업생산성향상협력사업 (1)한국생산향상 프로젝트사업	6 사 (또는 공장)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지도 훈련 · QC서클활동, 개선제안, 소집단활동 SS 운동 목표관리, 자동화 계획, 불필요 제거
(2)한국공장진단사업	2 사 (또는 공장)	생산성향상에 관한 기업진단, 개선제안 · 경영진단, 조직진단, 생산관리 진단, 자재관리 진단, 품질관리 진단, 공정관리 진단 등
3. 산업기술교류산업 (1)산업기술교류촉진 미션	업종별 부품개발 담당자, 중소기업 경영자	산업기술 교류미션을 받아들어異업종교류를 도모 · 세미나, 공장견학·간담 등
4. 조사홍보사업 (1)산업국제경쟁력 향상 세미나	5 분야의 기업 경영자 중견간부 등	강의, 사례연구 등 · 수출증진의 총론, 코스트 (임금, 원재료비, 제조비), 품질 (생산, 품질관리, TQC), 판매 (마케팅, 납기) 및 한국사례 연구 등
(2)한국업종별공장 개발조사 사업	일한 무역대일적자의 2종류	대상업종의 조사 분석 및 보고서작성 · 자동차산업, 전기산업, 일반기계산업, 정밀기계산업, 일렉트로닉스산업 등
(3)일본의 경영관리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	기업경영자 중견 간부	일본의 경제발전과 기업경영, 경영전략 등에 관한 세미나
(4)각종 위탁조사 (기술이전, 중소기업육성 등)	산업기술협력 등에 관련한 테마	대상테마의 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일한 무역불균형 요인에 관한 분석 등 ·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 기술이전 문제에 관한 분석 등

' 9 3 韓國側 財團事業 總괄표

사업 내용	소관부처	실시기관 (재단사업 대행기관)
I. 인력교류사업 1. 기술 및 기능 인력연수 가. 중견 기술자 연수 나. 중견 관리자 연수 다. 기술지도기관 지도요원 연수 2. 전문가 초청 가. 업종별 모델 기업에 대한 일본 전문가 초청지도 나. 산업디자인 기술지도 3. 연구인력파견 및 활용 가. 연구인력의 일본파견 나. BRAIN POOL 제도 운영 4. 신진이공계 인력육성 가. 한국 이공계학생의 일본대학 유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과기처 과기처 교육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산업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장학회
II. 공동연구사업 및 산업기술 협력기반구축 1. 산업, 과학 환경분야 공동연구 가. 한일산업기술공동연구 2. 산업기술 협력기반구축 가. 한일 TECHNOMART개설 나. 전문분야기술별 기술 교류세미나 심포지엄, 기술교류회 개최	상공부 과기처 상공부 상공부	산업기술정보원 공작기계공업회 등
III. 기타사업		
총 계		

<提 案>

韓日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 誘致

大 農 GROUP
會長 朴 泳 逸

오늘 유서깊은 古都이며 世界的인 文化觀光도시로 널리 알려진 이곳 慶州에서, 兩國經濟界重鎮이신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提案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9年 4月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21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兩側이 合意하여 실시되온 韓日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은 '89年이래 이미 네차례에 걸쳐 總 75個社 87名の 韓國中堅經營人이 日本을 訪問하여 日本의 優秀기업과 현지산업시설견학, 세미나개최, 韓日中堅經營人交流懇談會, 日本TOP經營人招請講演會等を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兩國中堅經營人間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측면에서 커다란 意義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兩國의 重鎮經濟人 및 關係者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急變하는 世界經濟

環境속에서 韓日兩國이 共通的으로 지향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꾸준히 推進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발전에 先導的인 役割을 遂行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韓日協力關係를 더욱 擴大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今年 2月 大韓民國은 새로운 文民政府의 出現으로 사회각계층 제반분야에서 改革과 變化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세대교체 역시 빠른 속도로 推進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改革과 變化의 움직임은 서서히 擴散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진통이 있지만 國民 대다수의 지지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어 청신한 사회분위기 진작, 근로의욕의 소생, 새로운 經濟跳躍이라는 좋은 結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찌기 韓日經濟界重鎮의 世代交替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키 위하여 韓日中堅經營人交流事業을 마련하신 兩國財界어른들의 탁견에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今年으로 5年째를 맞이하게 되는 本事業이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事業으로 계속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實績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方向摸索을 통해 한차원 높은 相互交流프로그램을 積極的으로 開發하고, 實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行事比重이 높은 現在의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兩國中堅經營人들이 한곳에 같이 投宿하면서 相互關心事에 관해 진지하게 討論하고 協議하는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今年에는 日本側에서도 한번 中堅經營人促進團이 내한하셔서, 새로운 改革의 바람이 불고 있는 韓國의 社會모습을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갖는 提案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本 및선事業이 兩國經濟界의 높은 관심과 격려속에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兩國財界重鎮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傾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答 辯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石原 増男

石原입니다. 조금전 大農그룹의朴회장님으로부터 提案이 있었던 韓日中堅 經營人 交流促進團 誘致라는 提案에 대하여 答辯을 하겠습니다.

이 중견경영인 교류촉진단은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過去 4번 실시되었습니다. 每年 가을에 일본에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日韓經濟協會로서는 협회의 會員會社, 관계되는 會社 團體 그리고 學者, 專門家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많이 얻어서 그 수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結果 兩國의 젊은 경영인들에 相互交流와 이해증진이 深化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提案은 종래의 행사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 즉 研究會나 공부를 양국이 舍宿을 통해서 推進하는 方式을 採用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몇번 말씀드린결로 압니다만, 한마디로 경영인이라하더라도 한 일양국의 경우 기업에 있어서의 위치라든가 年齡區分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趣旨는 尊重하면서 앞으로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사무국간에 충분히 檢討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以上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提 案〉

訪日輸出促進團 및 部品開發協力團 派遣에 대한 協調要請

(株) 漢陽流通
社長 賈 甲 孫

最近의 우리나라의 對日輸出이 '90年代에 들어 減少勢로 돌아 서는 등 沈滯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原因은 韓國의 急激한 賃金引上으로 인한 價格競爭力弱化和 더불어 日本의 景氣沈滯等에 緣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韓日兩國의 貿易現況을 재점검하고 擴大均衡의 方案을 모색키위해 現在 兩國 頂上會談의 後續措置의 일환으로 韓日경제인FORUM을 構成하여 심도있게 方案을 協議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부디 좋은 분석과 대책이 講究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韓日貿易不均衡의 裏面에는 물론 그 동안 韓國의 輸出패턴의 主流를 이루어 왔던 大量小品種 生産方式의 加工組立産業 偏重構造와 低生産性,

技術開發 소홀등으로 因하여 世界的으로 보아도 特異한 日本市場에 對한 接近을 제대로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原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日本의 複雜한 流通構造와 非關稅障壁等도 對日輸出의 저해요소로 크게 作用되고 있는 昨今の 現實을 勘案해 볼때 이의 改善을 위한 日本側의 積極的인 努力도 必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韓國側으로서는 對日輸出에 適合한 生産體制를 構築하기 위해서 品目別 시스템등으로 製造라인을 轉換하고 中小企業間의 相互依存型系列化에 努力하는 것이 重要하며, 技術開發을 통한 마켓팅의 強化 및 アフター서비스 機能의 強化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미 本會議에서 合意, 우리나라 對日輸出에 종사하는 中小企業을 위주로 構成 派遣해 오고 있는 訪日輸出促進團 事業은 꾸준히 일본지방도시의 수입수요진작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않는 JETRO등 관계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訪日輸出促進團은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 改善하여 금년중에 5회 派遣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제1차는 3월초에 나가사끼, 오오이따, 고 오베를 訪問하여 좋은 成果를 거둔바 있습니다. 今年の 잔여 4회의 미션도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關心과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兩國 中小企業間의 部品開發産業協力을 本會議에서 합의하여 '86년부터 매년 部品開發協力團을 派遣해 왔습니다만, 今年부터 새로 발족되어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는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부품개발협력

단을 2회나 유치할 計劃으로 있어서 本事業의 今年도 실시 여부는 日本 側 사무국과 긴밀한 協議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日本 각지의 商工團體等에 의한 수입촉진단과 관련된 경제사절단이 다수 방한한 바 있습니다만, 今年度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代表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答 辯

(社) 日本貿易會
專務理事 齋藤 成雄

日本貿易會의 齋藤입니다.

저는 日韓市場協議會의 副會長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答辯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賈 甲孫사장으로부터의 제안의 前提로서 韓日貿易不均衡의 原因에 대한 指摘이 있었읍니다만, 저도 同感하는 바가 큼니다.

이미 여러번 論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역불균형문제의 背景에는 한국의 貿易構造의 産業構造의 문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끈기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構造問題를 다루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지적하신 것 처럼 輸出促進團등을 많이 活用해 나간다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輸出促進團의 派遣은 이미 종래부터 오랜동안 실시되어 오던 것으로서 昨年까지의 8年동안 42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同感하는 바 입니다.

금년은 다섯번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이미 끝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네번에 대해서도 일한 시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日本貿易會, 各地의 商工會議所 나아가서 관계단체 기업의 협력을 얻어서 수용준비를 지금 推進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것을 眞心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部品開發協力團 파견수용에 관해서는 提案속에서도 있었듯이 새로이 발족한 産業技術協力財團의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협회와 재단이 調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일한시장협의회는 지원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以上입니다.

第2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25TH JOINT CONFERENCE OF JAPAN-KOREA & KOREA-JAPAN ECONOMIC COMMITTEES

1993. 4. 15~16 KYONGJU KOREA

< 공동제안 >

「 청소년 교류 양국 대학생 상호방문 」

(사) 일 한 경 제 협 회
사무이사 겸 사무국장 小林 幸司

고바야시라고 합니다. 청소년 교류 일·한 대학생 상호방문에 대하여 일·한 양국의 공동제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은 1985년부터 일·한 국교회복 2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시작된 이래 작년까지 한국에서 8회, 382명의 대학생이 방일하였으며, 한편 일본에서는 5회, 계 160명의 대학생이 방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한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하여 학생들이 젊은 시대에 상호간의 국가를 방문하여 얻은 경험이 후일 그들이 사회의 제 일선에서 활약할 때 반드시 양국의 다양한 교류면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일한·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회원, 회사의 임·직원 들의 자제분들입니다.

또한 교류의 내용은 양국 대학생 상호간의 교류, 홈 스테이, 문화시설, 산업시설의 견학 등, 통상의 관광여행에서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가한 양국대학생 들로부터의 감상문에 의하면 (일본측에서는 작년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협회회보에 게재), 그 내용의 대부분은 「상호국가를 방문하여 학생 상호간이나 일반인들과 교류속에 사회 현실의 견문을 넓힘으로서 기존의 개념을 극복하여 상호 국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중에는 학생 상호간의 우정이 싹터 귀국후에도 서신 연락을 가지며 다시 방문하여 교류를 지속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참작하여 본 교류사업은 양국 경제교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교류의 활성화 속에 양국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양국 경제계 및 양 협회 회원 및 회사의 지원과 협조하에 더욱 내용면에 충실을 기하여 금년도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제안을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全體會議

〈全體會議〉
(分科會 議長報告)

第1分科會(貿易關聯) 分野

韓國側 共同議長
張 致 赫

〈主 題〉

韓國側 「韓日貿易不均衡의 是正을 위한 産業協力方案」
現代經濟社會研究院 院長 裴 成 東

日本側 「아시아에 있어서의 日韓經濟關係」
兼松(株) 相談役 鈴木 英夫

〈코멘트〉

韓國側 (株)高麗貿易 社長 朴 勝 珣
三星物産(株) 副社長 李 吉 鉉

日本側 (株)長銀總合研究所 理事長 竹內 宏
日商岩井(株) 專務取締役 吉田 進

(主題發表要旨)

韓國側 「韓日貿易不均衡 是正을 위한 産業協力方案」

1. 問題의 提起

韓日貿易不均衡 問題는 美日間보다도 絶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改善하기 위한 日本側의 努力 및 姿勢가 미흡하며, 앞으로 形成될 東아시아 經濟協力次元에서도 반드시 解決을 要하는 問題이다.

2. 貿易不均衡의 原因

根本的으로는 對日輸入誘發的인 國內의 産業構造와 技術力の 脆弱性에 있지만, 最近의 輸出不振은 價格競爭力의 喪失에 따른 것이며, 한편으로는 關稅, 非關稅障壁에 起因한 日本의 閉鎖性도 하나의 要因이다.

3. 短期的 解決課題

短期的 解決課題로서는,

- ①非價格競爭力의 提高
- ②企業間的 共同브랜드의 開發圖謀
- ③日本市場의 變化에 대한 具體的인 對應
- ④關稅, 非關稅障壁의 緩和 및 撤廢를 위한 對日通商交渉의 強化
- ⑤對日輸出有望 中小企業의 育成圖謀
- ⑥輸出増大를 위한 在日僑胞의 積極的인 活用등을 들수 있다.

4. 韓日産業協力推進의 障礙要因

韓日産業協力の 推進은 長期的이며 根源的인 韓國의 輸出増大, 나아가서는 對日貿易 逆潮改善의 유일한 對策이지만, 現實的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兩國 視覺의 懸著한 차이, 韓國의 産業構造 高度化 미흡, 貿易과의 連繫 미흡, 投資環境의 相對的 열세, 日本의 消極的 姿勢등이 방해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5. 向後의 推進方案

韓國은 産業構造의 合理化 및 高度化, 水平分業, 貿易均衡의 達成이라는 命題下에서 韓日産業協力에 임하는 것이 重要한 자세이며, 또한 이 세가지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는

- ①産業協力에 대한 兩國間 認識의 狹小
- ②民間次元의 積極的이고 持續的인 接觸努力의 強化

- ③部品, 素材産業의 重點育성과 R&D投資의 擴大를 통한 中小企業의 堅實化, 技術集約化 추구
- ④第3國 市場의 共同進出을 통한 貿易과 産業協力の 連繫強化
- ⑤投資協力促進團의 充實化
- ⑥韓國側의 投資環境改善을 통한 技術導入與件의 造成
- ⑦日本의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의 努力등이 要求되고 있다.

6. 結論

韓日兩國의 貿易 不均衡 改善을 위한 産業協力에 있어서 日本의 先進技術을 소화해 낼 수 있는 韓國의 흡수능력 提高가 充分條件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兩國 民間次元의 多元的이고 積極的인 交流下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또한 兩國間의 産業協力は 아시아 國家에서의 日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며, 東아시아經濟圈 나아가서 世界經濟圈의 實現을 가져오는 첩경이다.

(主題發表要旨)

日本側 「아시아에 있어서의 日韓經濟關係」

1. 經濟活動의 國際化에 따라 日韓兩國間 經濟問題도 단순히 2個國만의 問題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다 全球적인 視點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즉, 오늘날 日韓兩國間에 여러가지 懸案問題가 存在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認識하고 있으며, 이 解決策으로서 兩國 關係者가 智慧를 모아 努力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經濟全體에서의 兩國의 位置 및 役割 수행이라는 보다 全球적인 視點에서 兩國關係를 생각해야 한다.
3. 이러한 關係는 具體的으로 貿易・投資面에서의 日本과 韓國의 實績을 볼때 兩國이 아시아지역과 깊은 關係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이와같은 事實을 前提로 將來에도 日韓兩國은 協力해서 아시아지역 전체의 經濟發展에 공헌해 가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 ①生産에 있어서의 水平分業體制의 確立
 - ②아시아지역의 各種 프로젝트, 投資, 企業進出에 있어서의 協力 關係 構築
 - ③經濟情報의 交換強化등에 있어서 緊密한 協力關係가 중요하다.
5. 結論的으로 日韓兩國은 友人으로서 보다 큰 視點에서 일치협력하여 아시아지역의 發展에 진력해야 한다.

(코멘트 : 日本側)

- 日本은 막대한 貿易黑字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國內投資에 활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 이의 是正을 위해서는 産業經濟의 기득 영역권에서의 변화가 요망되고 있다.
- 韓日間의 貿易不均衡 問題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는 데, 이는 과거 重化學 工業 中心의 성장결과, 部品産業으로의

成長이 붕괴된데 원인이 있다.

- 또한 貿易不均衡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國際競爭力 強化」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協力時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赤字가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한편으로, 長期的으로는 도움이 되기에 日本側으로서는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다.
- 한편 投資關係에 있어서 보면, 8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 유럽등지에서는 日本의 資本誘致를 위해 관민일체가 되어 투자유치 목적의 방일이 빈번했던 반면, 韓國은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없었다. 따라서 韓國은 향후 日本과의 협력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정립된 자세가 要望된다.
- 또한 赤字問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에 입각한 전략이 필요하며 아시아전체의 巨大한 마케팅을 위해 兩國關係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코멘트 : 韓國側)

- 兩國 종합상사는 무질서한 競爭보다는 전문분야별 水平分業과 폭넓은 情報交換이 필요하며, 逆調의 개선을 위해 일본상사는 수출알선을 增大하고, 일본정부도 EC, 유럽수준 정도까지 關稅의 關門을 넓혀야 할 것이다.
- 제3국 특히 아세안에서의 韓日兩國間 협력분야는 많으며, 그중 금융·기술·설비제공면에서 日本이 더많은 長點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측의 협력이 요망되며, 특히 情報의 交流面에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全體會議〉

〔分科會 議長報告〕

第2分科會(産業協力分野) 報告

韓國側 共同議長
趙 錫 來

〈主 題〉

韓國側 「中小企業의 産業調整과 韓日協力課題」
産業研究院 中小企業研究室 室長 白 洛 基

日本側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 - 環境裝置메이커의 立場에서 -
三菱重工業(株) 弘津 秀雄

〈코멘트〉

韓國側 (株)釜山파이프 副會長 李 平 宇
韓國金屬家具工業協同組合 理事長 邊 鼎 九
産業研究院 日本研究센터 室長 金 都 亨
샘표食品工業(株) 會長 朴 承 復

日本側 (株)第一勸銀總合研究所 代表取締役理事長 池內 康彦
全國中小企業團體中央會 常務理事 錦 織 璋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取締役 國際本部長 野村 滿郎
新日本製鐵(株) 取締役 河村 康夫

(主題發表 要旨)

韓國側 「中小企業의 産業調整과 韓日協力課題」

- '89년 이후 韓國 中小企業은 구조조정기에 돌입하여 經營環境이 악화되어 왔음. 中小企業의 판매부진, 재고누적, 수출부진으로 競爭力이 저하되고 있음.
- 그러나 基本的으로 中小企業은 노동집약산업이며, 大企業 集團과의 도급관계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주도적인 構造調整이 어려운 실정임. 今後 해외투자, 경영다각화, 성장분야 개척을 위한 大企業과의 협력이 필요.
- 韓日兩國間 協力分野로는
 - ①自動化技術協力으로 연수업체, 연수방법, 기간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②財團事業이 韓日中小企業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계획, 운영되어야 함.
 - ③민간차원의 合作, 技術提携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조사, 홍보 활동 강화

(코멘트 : 日本側)

- 日本의 中小企業의 구조조정능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韓國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
- 일본은 現在 Restructuring(再構築)하에 단순한 경비절감보다 現場의 개선, 제언을 적극 수용,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異業種交流로 신상품 개발중.
- 사회와의 共生活動에 적극적임.
- 韓國은 Top - down식 의사결정인 바 日本의 종신고용하의 QC활동이 종업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진출 기업에도 적용되어 성공하고 있다는 事實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同伴者 意識이 필요.

- 日本의 70년대초 円貨강세이후 현재 円貨강세까지 3회에 걸친 환율인상하의 中小企業의 불황대책과 政府의 특별입법에 의한 대책을 설명.
- 이 結果 현재 중소기업은 50%의 生産能力을 가동중이나, 기술상품력은 고도로 향상되고 하청구조도 大企業中心에서 Network구조로, 종속관계에서 사회적 분업 확대로 變貌하고 있음.
- 國民經濟의 조화롭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中小企業의 역할중요.

(코멘트 : 韓國側)

- 韓國은 系列中小企業比重이 낮은 반면, 日本의 계열, 협력, 하청의 비중이 높음.
- 대기업, 중소기업간 협력은 共同體的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함.
- 현장교육, 정신풍토 改善이 중요함.
- 韓日兩國은 Globalism이 Humanism이라는 思考下에 적극적인 청소년교류를 통해 현안 해결해야 함.
- EC통합, NAFTA등에 對應하려면, 東아시아에서의 韓·中·日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日本은 과거 歐美의 협력으로 발전한 경험에 비추어 對韓協力을 적극화하여 불려화에 대비해야 함.
- 1987년이후 構造調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主題發表 要旨)

日本側 「環境保全과 企業의 役割」

- 日本의 經濟發展과 環境問題
 - ・1970년대의 공해대책 기본법을 위시하여, 관련입법으로 엄격한 환경규제
- 環境裝置 業體로서 SO_x, NO_x, 폐기물 관련 설비와 연구개발에 진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對外技術 協力이 가능하게 됨.
- 地球環境問題는 과거와 같은 공해방지 대책과는 차원이 상이하며, 韓國등 公營國과의 國際 협조하에 지구적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 對外協力の 경우 강대국의 工業力을 충분히 활용, 기술이전해야 함.
- 日韓兩國은 플랜트 분야에서 계획, 설계, 기자재조달, 현지건설등 역할분담하에 분업체제를 構築하고, 地球環境保全을 위해 협력해야 함.

(코멘트 : 韓國側)

- 環境技術協力は 금후 양국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場으로서 주목.
그러나 양국의 기술개발, 이용체계가 效率第一主義에 흐르기 쉬우므로 환경보전형으로의 일대혁신을 위한 決斷이 필요 함.
- 지금까지 兩國産業技術協力は 具體性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었음.
그러나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으로 日本은 고급 기술이전이 가능하므로 양국의 共同發展에 도움이 됨.
- 환경기술협력도 분업체제를 견고히 하여 아시아 地球環境保全에 일익을 담당해야 함.
- 최근의 CO₂ 規制의 후퇴와 不況下의 공해방지 투자의 상황에 대한 질의.

(코멘트 : 日本側)

- 韓國의 쓰레기 소각문제에 관심을 표명, 소각지 확보를 위한 관민의 컨센서스 確立과 政府, 지방공공단체, 국민, 기업의 대응의 필요성 강조.
- 韓國도 日本과 같이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 특히 기본철학이 필요함 예컨대 쓰레기 문제를 逆利用하여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중요.
- 對韓技術移轉과 수용의 경우, 技術을 이전받는 측의 실정에 맞는 기술선택이 필요.
- 中國市場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
- 環境稅 導入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을 고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일본은 현재 環境基本法이 國會에 상정되고 있고 경제발전, 환경기술개발, 지구환경보전등을 소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國際技術移轉에는 적극 대처할 예정.
- 原子力發展計劃에는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Clean Energy개발, 고온가스터빈개발등으로 대응하고있으며, 不況에서도 지방공공사업확대로 공해방지투자는 여전

〈全體會議〉

合同會議議長 總括

韓國側 代表團

團長 朴 龍 學

◎ 第1, 2分科會 및 合同分科會를 進行해 주신 兩側 共同議長님께 感謝드립니다.

◎ 특히, 이번 第25回 合同會議 부터는 從前과는 달리 分科會方式로 變更하여 相互 率直한 意見交換이 可能토록 試圖했으며, 그 結果 처음이라 어색한 部分이 없지도 않았습시다마는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 덕택에 成功的으로 會議를 終了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協調에 다시한번 眞心으로 感謝드리는 바 입니다.

◎ 이번 合同會議를 통해 兩國間 交易增進, 韓日中小企業協力, 企業環境, 技能人力交流等에 關해 相互 理解增進에 有益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기된 問題點等은 點檢하고, 改善을 위한 方案을 講究함으로써, 漸進的인 解決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民間經濟人들이 더욱 協力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韓日經濟人포럼과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의 현재 推進現況과 向後計劃에 關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두가지사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韓日頂上會談의 後續措置로서, 특히 財團의 경우 設立과 運營過程에 있어 兩國政府와 民間經濟界가 긴밀히 協力하여 實施하고 있는 重要的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에비주어 新規事業等이 속속 開發되고 推進됨으로써 韓日中小企業間 産業技術協力이라는 소기의 成果가 實現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加一層의 關心과 協力を 付託드리는 바 입니다.

◎ 또한 韓日經濟人포럼의 경우, 금년말을 目標로 兩國頂上에게 報告書를 提出토록 豫定하고 있는만큼 兩國貿易增進, 産業協力を 위한 좋은 對策 建議가 集約될 수 있도록 本人으로서도 韓國側 委員長의 立場에서 最善을 다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提案事項으로 發表된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 事業, 訪日輸出促進團事業이 그동안 적지않은 成果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變化하는 周邊條件과 外部의 助言等を 積極 반영하여, 훌륭한 事業으로 계속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兩國經濟人 여러분의 協力을 付託드립니다.

◎ 感謝합니다. 以上으로 委員長總評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大韓民國 財務部 姜錫寅 投資振興課長께서 “外國人 投資政策方向”이라는 題目으로 여러분께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最近 우리나라의 外國人 投資環境이 적지않게 개선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充分한 弘報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財務部에서 이번 合同會議時 꼭 弘報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달라는 付託이 있어, 日本側 事務局의 諒解를 얻어 오늘 이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들으시고 疑問点이나 追加說明이 必要한 事項이 있으시면 서슴없이 質問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外國人投資 政策方向

財務部 投資振興課
課長 姜 錫 寅

1. 인사말

- 内外賓客 여러분, 韓·日 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 參席하신 日本財界의 有力人士 여러분, 오늘 본인은 우리政府內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關聯 業務의 實務責任者로서 우리政府의 政策方向을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說明을 통해 日本企業人 여러분의 對韓投資에 관한 關心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2. 韓國經濟現況 및 展望

- 韓國經濟는 지난 60년대 이래 30여년 동안 연평균 8%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11大 交易國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관련, 본인은 韓國의 經濟官僚의 한사람으로서 韓國의 이같은 經濟發展에 日本企業人들이 얼마나 큰 寄與를 하여왔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感謝를 표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고조된 民主化 열기로 分配欲求가 분출되면서 物價 및 賃金上昇 등으로 輸出競爭力이 급격히 떨어지고 成長이 鈍化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92년부터는 物價 및 賃金上昇勢가 鈍化되고 成長率도 다소 上昇되면서 國際收支도 改善되고 있으며 여러면에서 企業活動의 興件이 好轉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 2월에 출범한 文民政府는 規制와 統制대신 創意와 自律이 保障되도록 關聯制度를 改革하고 있습니다. 또한 賃金引上도 公務員 俸給凍結을 시작으로 引上움직임이 自制되거나 最小化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제2의 跳躍을 위해 心機一轉하여 韓國病을 克服하고 新經濟發展 隊列에 나서고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經濟의 活力이 回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日本의 最近 對韓投資 趨勢

- 1962년 부터 '92년까지 日本의 對韓投資는 총 2,250건, 41.7억불로서 총 外國人投資중 件數로는 56%, 金額으로는 41% 에 해당되며, 이는 韓國의 國內 資本形成에 日本이 결정적인 寄與를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그런데, '88년 이래 最近 5년간 日本의 投資는 해마다 격감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92년도에는 총 外國人投資중 件數는 72건으로 30%, 金額은 1.5억불로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특히 製造業分野에 대한 日本의 投資가 不振한데 그 이유는 賃金上昇 및 勞使紛糾 등으로 韓國이 單純 製造業의 투자대상국으로서의 魅力을 다소 상실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4.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內容

- 韓國政府는 이러한 盲點을 補完하고 보다 많은 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를 積極 誘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國內市場의 開放을 擴大하고 外國人投資를 阻害하는 各種規制를 계속 撤廢하여 왔으며 節次 및 書類의 簡素化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 우선 가까운 작년 5월이후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하여 우리政府가 조치한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92.6월에는 優先株 發行을 全面的으로 許容하는등 運營資金 調達을 위한 企業의 增資를 許容하였습니다.
 - o '92. 11월에는 서비스業의 開放幅을 擴大하였으며, 製造業등 4개업종에 대하여 合作義務를 廢止하였고, 5년간 租稅減免 惠澤을 주는 租稅減免對象事業을 擴大하였으며(外國인투자 : 58개 →80개사업으로, 기술도입 : 71개 →101개 기술), 技術導入 契約申告의 主務部 申告對象을 縮小하여 外國換銀行 認證範圍를 大幅 擴大하였습니다. 아울러 外國人投資 比率 50%이상 企業을 公開勸告對象에서 除外하였습니다.
 - o 또한 '92.12월에는 과거 認可時에 外國人投資企業에 賦與한 輸出義務등 認可條件을 完全 削除하였으며, 土地取得이 許容되지 아니하던 서비스業 중 尖端서비스業 및 保險業에 대하여 사업상 필요한 土地의 取得을 許容하였습니다.
 - o 아울러 '93년 1월에는 國內企業에는 不許하고 있는 資金借入과 關聯하여 外國人投資事業에 대해서는 高度技術을 隨伴하는 製造業에 대하여 母企業이나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3년이내의 短期 海外借入을 許容하였습니다.

- 또한 外國人投資節次를 簡素化하는등 外國人투자제도를 先進國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令을 개정하여 금년 3월 1일 부터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外國人의 投資에 대하여 거의 모든業種 (90%이상)을 申告制로 轉換하여 小賣業・宿泊業을 제외한 外國人投資 自由業種에 대하여 申告制를 適用하고 있으며
 - o 外國人投資 申請書類 및 審査事項과 技術導入申告時 提出書類를 大幅 簡素化하였고,
 - o S/W개발, 技術試驗・檢査 및 分析 (자동차, 항공기, 선박등 輸送器機 및 生命工學 관련분야에 한함), 産業시스템 關聯 엔지니어링 서비스등 尖端業種에 대하여 租稅減免 惠澤을 추가로 賦與하였습니다(총 83개).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投資環境이 大幅 改善되었는 바, 이러한 改革은 새로 출범한 文民政府의 出帆으로 더욱 加速化될 것입니다. 또한 外國人投資企業이 韓國에서 事業을 營爲하는데 보다 나은 營業環境을 提供할 것으로 期待됩니다.

5. 向後 政策方向

- 앞으로 韓國政府가 推進하고자 하는 外國人投資 政策의 主要한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첫째, 外國人投資를 積極 誘致함으로써 産業構造의 國際化를 통하여 經濟의 能率向上과 産業體質의 強化에 寄與하도록 하고,

- o 둘째, 先進國의 高度技術移轉 忌避現象을 勘案, 尖端서비스業을 포함한 高度技術產業에 대한 投資를 積極 誘致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를 더욱 擴大할 것이며,
 - o 셋째, 서비스부문을 과감히 開放하고 각종 規制를 撤廢하므로써 外國人 投資 興件을 劃期的으로 改善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基本方向 아래 政府는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外國人投資 誘致對策을 마련하여 推進하고자 합니다.
- o 첫째, 現在 外國人投資가 許容되고 있지 않은 272개 業種중 極小數의 業種을 除外하고는 '97년까지 모든業種을 開放하도록 5個年 開放豫示制를 마련할 것입니다.
 - o 둘째, 外國人土地取得 制度는 現行 Positive System에 의한 許容方式에서 Negative System에 의한 許容方式으로 轉換하여 業種에 관계없이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해 實需要 범위내에서 土地取得을 許容토록할 것입니다.
 - o 셋째, 現在 尖端製造業에 한해 許容하고 있는 短期海外借入을 一般製造業에 대해서도 許容하는 方案을 積極 檢討할 것입니다.
 - o 넷째, 外國人投資에 대한 主要 隘路事項의 하나인 工場立地 選定 問題의 解決을 위해 外國人投資企業 專用工團을 首都圈內에 建設토록 推進하고 있습니다.
- 또한 國內에 進出한 21개 日本綜合商社中 1차적으로 12개상사에 대하여 '92.10.1 輸出業에 한해 貿易業을 開放한 바 있으며, 또한 '93.7.1 부터는 나머지 9개 商社에 대하여도 國內法人 設立을 許容할 것입니다.

6. 結 論

- 韓國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外國人投資家들에 있어 여전히 魅力있는 投資對象國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풍부한 高級人力을 갖고 있고 비교적 內需市場의 規模가 크며, 社會間接資本이 餘他 開途國에 비해 잘 整備되어 있고, 基礎科學, 聯關產業등이 다른 開途國에 비해 발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韓國人들의 새로운 跳躍을 위한 成就欲求가 어느때 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 다시한번 지난 '60 ~ '70년 開發年代에 많은 日本企業들이 對韓投資를 통해 韓國의 經濟發展에 寄與하였던 點에 感謝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對韓投資와 技術移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仰望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企業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第25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共 同 聲 明

第25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93年 4月 15日, 16日 兩日間 大韓民國 慶州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團長外 1 3 9 名 ,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團長外 1 4 0 名이 參加하여 開催되었다.

1. 먼저, 日本側에서 金 泳三 新任大統領의 就任에 對해 慶祝의 뜻을 表하고, 新政府下에서 加一層 韓國의 發展과 兩國의 友好關係增進에 대한 期待가 表明되었다.

2.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專門委員會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1) 第19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合同會議

(1992年 7月, 日本・札幌)

(2) 第18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合同會議

(1992年 6月, 日本・千葉縣富浦)

(3) 第11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合同會議

(1993年 3月, 日本・東京)

(4) 韓日・日韓產業一般委員會

(同委員會 第3回 合同會議 開催豫定 1993年가을, 日本・東京)

3. 이어서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方向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認識을 같이 하였다.

冷戰의 時代가 終了한 오늘날, 世界各地에서는 政治的, 民族的, 宗教的 對立이 激化됨과 同時에 經濟面에서도 多難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經濟成長을 繼續하고 있는 아시아가 世界를 爲해 해야 할 役割은 至大하며, 韓國과 日本이 「아시아속의 韓日」 「世界속의 韓日」이라는 觀點에서 未來指向的인 協力關係를 더한층 強化하고, 아시아와 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과 繁榮에 貢獻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責務이다.

4. 兩側은 基調講演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 등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 事項에 對해서 認識을 같이하였다.

(1)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여전히 커다란 課題이지만, 이를 改善하기 爲해 韓國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를 圖謀하며, 日本側은 加一層의 市場開放促進에 努力함과 同時에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에 對해 積極的으로 協力한다.

(2)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を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兩國企業間의 相互信賴와 經濟合理性에 立脚한 協力關係의 增進이 基盤이며, 또한 實務的인 諸問題에 關한 兩側의 共通認識의 造成도 必要하다.

韓國은 外國人의 投資 및 技術移轉環境의 整備를 實施하고, 日本은 韓國의 産業技術力向上을 爲해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을 包含한 諸事業을 통해 協力한다.

(3) 中小企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를 위해 重要하므로 韓國政府 및 經濟界는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 技術等の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側은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等에 의한 技術人材의 育成, 助言等を 實施한다.

(4) 經濟의 發展, 消費水準의 向上에 따라 環境保全은 必要으로 地球規模의 課題가 되고 있다. 兩國은 아시아의 先進工業國으로서, 아시아 및 地球의 環境保全을 위해 協力한다.

(5) 成熟한 未來志向의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점에 비추어, 兩國은 經濟交流 뿐만 아니라, 多樣的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相互交流의 擴大에 努力한다.

(6) 現在 進行中인 韓日經濟人포럼에서 率直한 討議가 이루어져, 今後 兩國의 經濟協力關係의 方向에 對해 意義있는 結論이 模索되기를 期待한다.

5. 分科會에서의 提案等に 依據,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6. 次期會議는 來年 봄, 日本國에서 開催한다.

1993年 4月 16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 倉 信 也

〈 別 添 〉

合 意 事 項

- (1) 兩國間の 技術協力増進을 爲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依한 技術提携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2) 今年 5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을 加一層 內實化 하는 件
-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6)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 및 技術協力促進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促進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以 上

〈閉會式〉

團長人事文

韓國側 代表團

團長 朴 龍 學

어제 午後부터 이틀간에 걸쳐 開催된 第25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를 閉會함에 있어 한마디 人事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閉會式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會議는 昨年の 韓日頂上會談의 合意事項을 實踐하는 一環으로 구성된 産業技術協力財團과 韓日經濟人포럼이 發足된 후 처음으로 맞는 合同會議였던 만큼, 이의 成功的인 推進方案을 놓고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 眞摯한 토의를 하여 주신 덕분에 期待 以上の 多大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深甚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到來를 目前에 두고 우리 두나라는 종전 이상으로 堅固하고도 強力한 相互協調를 통하여 韓日 兩國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임으로서 단순히 兩國의 발전과 번영만이 아니라 全世界와 人類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할 共同의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兩國의 經濟人들이 꼭 이룩해야 할 役割은 매우 重要大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會議에서 우리가 合意한 모든 事項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곧 實踐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兩國間 貿易不均衡의 改善과 産業技術協力の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前進을 위해 함께 최대의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日程이긴 합니다마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는 會議後에 마련된 行事에도 꼭 參加하셔서 兩國 經濟人間의 友誼를 敦篤히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부디 健安하시고 加一層의 發展있으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들동안 정말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感謝합니다.

<閉會式>

團長人事文

(社)日韓經濟協會
會長 羽倉 信也

방금 韓國側의朴회장님으로부터 아주親切하시고 過分한 閉會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일본측 회장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韓日 兩側의 대표단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이틀간에 걸쳐서 열심히 討議를 하여 주셔서 깊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실로 큰 成果를 올렸고 성공리에 마칠수 있게 된 것도 主催國측인 朴龍學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측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다대한 支援과 協力을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깊이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世界經濟發展을 主導하여 세계의 新秩序를 구축해 나가는 있어서 큰 역할과 責任을 져야할 아시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 큰 한일 양국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서는 日本과 韓國이 共通된 認識을 가지고 또 責任을 自覺하여 未來를 향한 협력관계를 強化해 나간다는 것은 한국이 修行해야 할 가장 큰 國際的 義務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合同會議에 있어서도 兩國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 根據하여 무역불균형의 改善과 投資, 技術協力の 면에서 꾸준한 협력을 거듭해 나간다는 것, 또한 中小企業의 育成과 또는 環境保存의 면에서도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合意되었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信賴關係가 그 基礎가 된다는 것이 再確認되었던 것도 참으로 뜻 깊은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日韓經濟協會로서도 이번의 성과에 立脚해서 앞으로도 加一層의 교류를 거듭하여 信賴關係를 공고하게 함과 더불어 양국경제관계발전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배전의 支援과 協力을 하여 주시기를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더 한층의 發展과 健勝을 빌면서 내년 4월 日本 福岡에서 다시 뵙게 될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閉會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社團
法人

韓 日 經 濟 協 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SEOUL 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705號)

TEL : (02) 551-1541 /7

FAX : (02) 551-1540